

# 한인뉴스

2015

6

VOL. 228

haninnewsinn@gmail.com



재인도네시아한인회  
www.innekorean.or.id

# SAMSUNG

# Galaxy S6 edge

## NEXT IS NOW

---

Beautifully Crafted With **Glass & Metal**

Revolutionary **Dual Edge** Display

Capture Moments Instantly

With **Quick Launch** Camera

Save More Time With **Fast Charging**

---



Customer service: Toll Free 0800-112-8888, Telp (021) 5699-7777(hunting)



완벽한 휴식, 비즈니스와 품격이 공존하는 하늘 위 나만의 공간—  
180도 완전 평면 침대형 좌석으로 내 집같은 편안함은 물론, 40여편이 넘는 영화,  
다양한 프로그램과 음악CD를 제공하는 최첨단 개인형 오디오 비디오 시스템으로  
또 다른 여행의 즐거움을 드립니다. 대한항공과 함께 최상의 편안함을 느껴보세요.

| 구간      | 편명    | 출발   | 도착                 | 요일    |
|---------|-------|------|--------------------|-------|
| 자카르타 인천 | KE628 | 2205 | 0705 <sup>+1</sup> | 매일    |
|         | KE626 | 0750 | 1655               | 월,목,일 |
| 인천 자카르타 | KE627 | 1520 | 2010               | 매일    |
|         | KE625 | 1925 | 0035 <sup>+1</sup> | 수,토,일 |

\* 대한항공은 덴파사르에서 인천까지 매일 운항합니다.



## 스케일이 다른 편안함을 경험하세요

For further information, contact a Korean Air office closest to you  
Jakarta : 62-21-521-2180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WIN

**1** 한국으로  
패키지 여행  
티켓 증정  
(1티켓 2인용)

롯데쇼핑에비뉴 2주년 기념 이벤트

**LUCKY DRAW**

5 JUNE - 26 JULY 2015

**2ND ANNIVERSARY PRIZES**

IDR 500,000이상 구매고객 한정\*



**5**

iphone 6



**5**

Samsung S6



**100**

Lotte Gift Voucher

\* Terms & Conditions Apply

# LOTTE SHOPPING AVENUE

## New Shopping Paradigm

### EVENT



## Shop Night Out

6월 20~21일 | 자정까지

출연: Kahitna & RAN

행사내용: Cashback 10%, Double The Value Voucher, Disc. Up To 70%



## 어메이징 카바레

6월 13~14, 20~21, 27~28일  
공연시간 : 3PM



## 조쉬 더 매직맨 과 함께하는 마술 퍼레이드

6월 12~14일, 19~21일  
금요일: 3PM 토/일: 5 PM



## 댄스 배틀

By Marlupi Dance Academy

Semi Final: 6월 13~14일  
Final: 6월 27~28일

### SALE & BAZAAR



8 - 28 June 2015

Lovely Sale UP TO **70% OFF**

BACK TO SCHOOL

Atrium - 3F  
Levi's, Oshkosh, Carter's, Barbie, Reebok, Converse, Puma, Crocs

12 JUN - 2 AUG 2015

SPORT WAREHOUSE

Ground Floor  
Nike, Adidas, Oakley, Skechers, Reebok, Converse

1 JUN - 31 JUL 2015

WONDERFUL LEBARAN SHOES & BAG

Ground Floor  
International Brands

15 JUN - 26 JUL 2015

### CASHBACK

20 - 21 JUNE 2015 ( 영업시간: 자정까지 )

## 단 2일간의 찬스

UP TO  
**10%**



IDR 2,000,000 & IDR 5,000,000이상  
구매고객 한정\*



IDR 7,000,000이상  
구매고객 한정\*

\* Terms & Conditions Apply GWP stock subject to availability

6월 1~7일 & 12~19일

## LOTTE ONLY CASHBACK

UP TO  
**7%**



With Min. Purchase\*

# 한인뉴스후원사로 초대합니다

1996년 7월 15일 창간된 한인뉴스는 한인사회의 소식과 정보통으로 한 호의 결해도 없이 발행되어 왔습니다. 2012년 세계한인회보콘테스트 대상 수상을 계기로 더욱 다양하고 수준 높은 콘텐츠를 확보하여 한인사회의 중추적인 정론지로서의 위상을 갖추려합니다. 저희와 동참할 후원사를 초대하오니, 한인기업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후원문의 : 한인뉴스 편집부

전 화 : 021-521-2515

한인뉴스발행인 신 기 업 배상



전시회/붓과 렌즈로 담은 인도네시아

디자이너 : Diki Satria Nugraha @dqddoodle

차례.....6

이모저모 한인사회.....8

논설위원칼럼/ 진정한 화해 <김문환 논설위원>  
송창근회장, 세계한상대회장에 선출  
KMK창사 25주년  
제16기민주 평통인니본부 자문위원 워크샵  
남경필 경기도지사, 인도네시아 방문  
CLEAN INDONESIA CAMPAIGN  
아시아 헌법재판소연합 사무처장회의  
CJ그룹, 인니정부표창 수상  
붓과 렌즈로 보는 인도네시아

나를 예측하고 내 필요를 아는 형체 없는 친구가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XX님을 위한 추천 상품, 추천 동영상 등의  
각종 맞춤서비스.

SNS와 인터넷거래를 통해

내 스스로 제공한 빅데이터가 나를 관리합니다.

내 동의도 없이, 잊는 것을 모르는 친구는

나를 안다고 합니다.

교류와 소통수단의 편리함이 주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자판을 두드리는 순간부터

표현의 자유, 익명성은 이제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haninnewsinni@gmail.com

0818711246

편집장장 홍석영

|   |   |
|---|---|
| UMN, 코리아센터 개설<br>코원, 사랑의 집짓기<br>제5회 교회연합 탁구대회<br>2015 자카르타 국제음악경연대회<br>땅그랑 반튼 한인회 소식<br>전시회안내<br>코이카, ITB에 사이버 보안센터 인계<br>두산인프라코어와 기술협력 사업 출범<br>도종환시인과의 이 아름다운 만남<br>JIKS소식<br>JIS소식 | Jalan-Jalan Jakarta / 도개교<br><사공경>.....45<br>따나또라자.....47<br>문화복제 밈<범상규>.....50<br>헤리티지바두이탐방기<서은희>.....53<br>법률해설/ 국내거래에 루피아사용의무<br><이승민>.....56<br>내 마음의 뜰 / 동그라미 이야기<br><시:한경순/그림:이태복>.....59<br>드라마로 배우는 BAHASA <허영순>.....60<br>화 도 소.....62<br>생활정보 |
| 박정자시인의 사진 읽기.....33   |   |
| 2015 5월 경제브리핑.....34  |   |
| 인도네시아 역사세미나 <이연주>.....38  |   |
| 지상갤러리/ 창이 열린 실내 <김선옥>.....40  |   |
| 6월의 행복에세이 <서미숙>.....42  |   |

발행처 : 재인도네시아한인회 / 발행인 : 신기엽 / 편집인 : 조규철 / 논설위원 : 김문환  
 편집장 : 홍석영 / 편집위원 : 김재민, 최양기, 황윤홍 / 취재기자 : 전민규  
 전 화 : (021) 521-2515, 527-2054 / 팩 스 : (021) 526-8444  
 주 소 : Jl.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 이메일 : haninnewsinni@gmail.com

\*\*\* 웹사이트(<http://www.innekorean.or.id>) 에서 한인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 진정한 화해

김문환/논설위원

니 미츠제독의 미해군과 맥아더장군이 지휘하는 미육군이 합동작전을 펴며 일본군이 점령하고 있던 남태평양상의 제도를 개구리처럼 하나씩 건너뛰며 북진하던 1945년 2월, 미제 5함대 소속의 기동함대가 1만발의 함포를 쏘아댄 후, 제5수륙상륙군단은 유황냄새가 가득한 이오지마에 상륙을 시도한다. 제5상륙군단에는 미해병 제3,4,5사단을 주축으로 7만여명의 병력이 배속되어 있었다. 아직 광에서 잔당 소탕중인

제3사단을 예비대로 남겨둔 채, 제5사단은 해발 169미터밖에 안되는 동굴요새인 수리바치산(Mt. Suribachi)을, 그리고 제4사단은 북동쪽의 비행장을 향해 진군한다. 이때 이오지마 수비를 담당하던 일본군사령관은 천황의 총애를 받아 낙점되었다는 구리바야시(栗林) 육군중장이었다. 5대째 사무라이 집안출신인 그는 육군대학 제26기를 차석으로 졸업한 기병장교였다. 2만2천명의 병력으로 섬 전체를 요새화하였던 구리바야시 장군은 최후의 일인까지 항전한다는 옥쇄작전을 전개하여 216명을 제외한 전원이 전사하였으며, 따라서 미군도 부상자를 포함하여 2만6천여명이나 되는 혹독한 댓가를 치르게 되어, 태평양전쟁사에서 미군이 일본군보다 더 많은 희생자를 낸 유일한 전투로 기록되게 된다.



스노우든 대위가 소속된 미해병 제23연대의 이오지마 상륙

지난 4월 중순 미국을 국민방문한 아베총리는 미상하원합동연설회에서 이오지마 참전용사라는 스노우든(Snowden) 예비역 중장과 구리바야시 사령관의 후손이라는 신도(新藤) 전 총무상을 나란히 귀빈석에 앉혀, 서로 악수하고 포옹하는 장면





지난 4월 미의회 합동연설회 (스노우든, 신도 악수)



특전사 '화해의 장' 행사

을 연출하였다. 미국에 대한 침략을 사과하는 내용을 언급하면서 ‘적과의 화해’를 강조한 것이었다. 이오지마 참전용사 중 최고령 생존자로 남아있는 94세의 스노우든 장군은 버지니아대학을 졸업하고 전시에 임관된 해병대위로, 위에서 언급한 미해병 제4사단 예하 23연대 2대대 F 중대장이었다. 그 유명한 ‘성조기 게양’ 사진은 함께 상륙하였던 제5사단 28연대 소속 5명의 해병과 1명의 해군위생병이 이끌어낸 작품이었다. AP통신 조 로젠탈 중군기자에 의해 두번째로 촬영된 성조기가 ‘승리의 상징’이 되어 미국뿐만 아니라 연합국 국민들의 사기진작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오지마 점령 후 미군은 이곳에 B-29 전폭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비행장을 건설하여 도쿄를 비롯한 일본의 전략적 도시들을 사정권 안에 넣었고, 끝내는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투하도 티니안 섬에서 출격한 B-29기가 귀환할 수 있는 중간귀착지로 이오지마가 확보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제2차대전 이후 폐허에서 서독의 번영을 견인한 아테나워 초대수상은 드골을 찾아가 사과하며 화해를 요청하였고, 동방정책을 추진하였던 빌리 브란트 수상은 1971년 노벨상을 수상한 직후 폴란드 바르샤바에 위치한 전쟁희생자 묘역을 찾아 나치에게 희생된 유대인 영령 앞에 완전히 무릎 꿇고 사죄하였다. 전쟁이 끝난 지 70년이 지난 지금도 메르

켈 수상은 전쟁희생자 기념행사에 어김없이 참석하여 머리를 숙이고 참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4월28일 자카르타 근교 쪄잔똥 특전사(Kopassus) 연병장에서 제63주년 창설기념식 행사가 열렸다. 그런데 이번엔 아주 특별한 장면들이 등장하였다. 군부철권정치 시대 분쟁지역에 투입되어 무력을 앞세웠던 바로 그 특전사가 아체 지역, 파푸아, 동티모르 지역의 저항단체였던 GAM, OPM, Fretilin 지도자들을 초청하여 ‘화해의 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도니 모나르도(Doni Monardo) 특전사령관이 주관한 이 자리에는 몰도코 국군사령관, 가똏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한 국군의 수뇌부는 물론, 유습갈라 부통령까지 자리를 함께하며 화해의 진정성을 보여주었다.

아베 수상은 세계 이목이 집중된 미국상하원합동 연설에서 그들의 특기인 ‘약자에겐 강하고 강자에게만 약한’ 태도를 반복하였다. 아베의 미국 방문 직전 일본계인 마이크 혼다를 비롯한 몇몇 미하원의원들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 분명하게 사과하라는 충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동풍이었다. 그들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노령화를 손꼽으며 달려만 들여다보고 있을지 모른다. 나카소네 전 수상은 태평양전쟁 당시 해군 주계장교(경리장교)로 근무하였던 발릭빠빠(Balikpapan)지역에서의 위안부 존재를 자신의 비망록에서 언급



하였었다. 한국인 피해자들과 함께 2000년 12월 도쿄, 2001년 3월 덴하그에서 열린 국제사법재판소에 참가하여 일본군의 만행을 폭로하고 위안부 인권회복을 부르짖다 수년 전 별세한 족자 출신의 마르디엠(Mardiyem)과 짜마히 출신의 에마(Emma) 할머니의 절규는 아직도 메아리로 돌아온다. 13살의 나이에 남부갈리만탄 반자르마신 인근 텔라왕(Telawang) 위안소로 끌려와 ‘모모예’라는 일본식 이름을 부여받고 성노예생활을 강요당했던 마르디엠 할머니는 자신이 겪었던 일본군의 천인공노할 만행을 2007년 ‘Momoye’라는 소책자로 남기고 직후 하직하였다. 그 책에서 자신을 포함하여 동료들 대부분이 백주대로에 짐승처럼 트럭에 실려지거나, 악극단에 가입시켜 준다는 감언이설에 속아 강제로 끌려왔다고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다.

2014년 4월 25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이 여성들은 전쟁 상황이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충격적인 방법으로 성폭행을 당했고, 끔찍하고 지독한 인권침해라는 것은 인지해

야 하며, 그 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고 존경해야 한다.” 고 발언하였다. 그리고 지난 5월 19일 서울에서 열린 ‘아시아리더십 콘퍼런스’에서 간나오토 전 총리는 “일본이 아시아에 고통을 준 점을 사과한다.” 고 언급하였다.

이렇게 모든 게 명명백백할진데, 더 이상 머뭇거리릴 일이 없다. 아베부인과 케네디대사가 옆에서 박수를 치며, 스노우든 장군과 신도 장관이 서로 껴안고 악수만 하면 그들의 만행이 속죄되는 것은 아니다. 아베 정부는 지금이라도 역사를 재인식하고 정도를 걸어 나갈 것을 촉구한다.



# 재외국민 등록 및 변경 안내

## <재외국민등록의 필요성>

○ 재외국민등록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 국내외 활동의 편의를 제공하고 재외국민 보호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 2015.1.22부터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어 해외 이주자(재외국민)의 주민등록말소제도가 폐지되고 재외국민에게도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이 발급되며, 재외국민이 주민등록신고를 할 때에는 의무적으로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은 2015.1.22부터 국내 부동산등기, 재산권행사, 국내학교편입학, 재외국민특례입학 등 필요한 해외거주사실 증빙서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재외국민등록 대상>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이상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당해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외국 국적자는 제외)은 재외국민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재외국민등록 방법>

### [1. 온라인 등록]

대사관 홈페이지(<http://idn.mofa.go.kr>)의 재외국민등록란을 클릭하여 접수합니다.

여권사본(사진란 및 최초입국스탬프면)을 대사관 팩스 또는 이메일로 송부하여야 등록이 완료됩니다.

### [2. 방문접수]

1. 재외국민등록신청서
2. 여권사본(사진면과 최초입국스탬프면)
3.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여권을 지참하여 방문

### [3. 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

1. 재외국민등록신청서
2. 여권사본(사진면과 최초입국스탬프면)
3. 체류허가서 사본(KITAS, KITAP, 비자사본)

## <재외국민등록 변경 신고>

재외국민등록자는 아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재외국민등록법 제8조)

1. 성명
2. 생년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
3. 성별
4. 등록기준지(있는 자의 경우만 해당)
5. 직업 및 소속기관
6. 병역관계
7. 체류목적 및 자격
8. 거주국 내의 주소나 거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 출생, 사망, 귀국 시 예도 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관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JL.Jendral Gatot Subroto Kav 57  
Jakarta 12950
- E-mail : [koremb\\_in@mofa.go.kr](mailto:koremb_in@mofa.go.kr)
- 영사과 연락처 : (62-21)2967-2580
- 팩 스 : (62-21)2967-2581

## 송창근회장, 10월 경주 세계한상대회장으로 선출

오는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경상북도 경주시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제 14차 세계한상대회’의 대회장으로 송창근(55) 인도네시아 KMK글로벌스포츠그룹(이하 KMK) 회장이 선출됐다.

재외동포재단(이사장 조규형)은 28일 강원도 평창군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동포재단 주관으로 열린 제26차 세계한상대회 운영위원회에서 송 회장이 만장일치로 대회장에 뽑혔다고 29일 밝혔다.

운영위원회에는 박기출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회장, 한창우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장, 홍명기 미국 듀라코트 회장, 권병하 말레이시아

헤닉퀸코퍼레이션 회장, 박중범 오스트리아 영산그룹 회장 등 동포사회의 대표적인 한상(韓商) 26명이 참석했다.



송 회장은 29일 “700만 재외동포를 대표해 한상대회장으로 선출된 만큼 책임감·사명감을 갖고 모국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한상대회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내비친 뒤 “차세대 한상 발굴·육성에도 힘쓰는 동시에 동포 기업과 국내 기업 간 비즈니스 가교 역할이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카르타 경제신문]

## KMK 창사 25주년 기념 행사 열려

땅으랑 소재 한인기업 KMK SPORTS GROUP(회장: 송창근)의 창립 25주년 기념행사가 KMK 1공장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1만여 명의 자사 근로자들과 승은호 코린도그룹 회장, 신기업 한인회장, 한인동포들 그리고 RCI와 Innox 등 한국지사 전 직원이 참석했다.

더불어 나이키 인도네시아 대표, 컨버스 총괄 본부장, 나이키 미국 본사, 컨버스 일본 사장, 영국 헌터사 사장 등의 축하 메시지와 일본 이토추그룹 사장 및 본부장의 축하 화환 등 신발산업 관련 기업으로부터 25주년 축하를 받았다.

KMK는 창립 이래 ‘HTM(Human Touch Management, 종업원 중심 경영)’이라는 경영 철학을 내걸고, 이익을 많이 내는 기업을 넘어 전 종업원이 가족과 같이 지내는 기업을 지향해온 바 25년 동안 탄탄하고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 현재 KMK는 17,000여 명의 근로자가 매월 각각 나이키 130만족, 컨버스 30만족, K5 10만족을 생산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현지 브랜드 Eagle이 Sea



game 공식스폰서로 선정되었다. 또, 향후 2~3년 내 중부 자바에 공장 2 곳을 추가 설립할 계획이다.

한편 2월부터 실시한 Management summit의 슬로건으로 ‘Growth is oxygen(성장은 산소와 같이 필수적인 요소)’, Keep it tight! Keep it simple! And keep it REAL!!!을 내세우고 있으며, 올해의 자사 키워드로는 “Minta maaf, Terima kasih, Selalu cinta(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사랑합니다)”를 지정했다.

## 제 16기 민주 평화통일 인도네시아본부 자문위원 워크숍



**민**주평화통일 인도네시아본부(동남아 남부 회장 박동희, 이하 민주평통)는 23일 자카르타 아랑22 레스토랑에서 민주평통소속 자문위원 50여명과 신기엽 한인회장, 이경철 공사, 박상민 공사, 선남국공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한 동포사회의 역할을 강조하는 워크숍을 열었다.

이날 “통일 대박”, “통일하면 무엇이 달라질까?” 라는 주제로 동영상 감상 후, 박상민 공사의 “최근 북한정세 및 대남 위협 동향”이라는 주제로 특강이 있었다.

박상민 공사는 “북한의 변화는 우리가 단순히 관찰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동적으로 북한의 변화를 촉발시킬 내외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3대 세습으로 들어선 김정은의 국가운영에 대한 한계를 전망하며 남북통일은 더 이상 꿈이 아닌 현실로 다가올 것”이라고 관측했다.

한인회 신기엽회장은 “자문위원들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인도네시아 교민사회의 안위와 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주실 것”을 당부하고, “오늘 워크숍이 민주평통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의미있는 시간이되길” 기원하였다.

또한 70주년 광복을 맞이하여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 아혹주지사서와 Jl. Sudirman에서 Jl. Tamrin까지 걷기동참(8월 16일), 8천 그루 나무 심기, 노벨평화상의 후보로 반기문 총장지지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동희회장은 환영사를 통하여 “통일은 간단하게 내 자신, 내 이웃,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부터 시작해야 한다. 인도네시아 한인사회와 세계 한인사회의 힘의 결집이 한국 통일의 힘이 될 것”이라며, 이 자리는 새로운 지혜가 모이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열심히 일해 준 16기 자문위원들에게 감사사를 표했다.

제 16기 민주 평통 동남아남부협의회는 지난 2013년 7월 출범하여 남북관계 가교역할로서의 인도네시아 주요인사 물색, 주요 인사를 초청하여 평화통일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통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차세대들을 위한 북한인권실태강연 등을 열었다.

## 남경필 경기도지사, 인도네시아정계 주요인사와 협력논의



남경필경기도지사

Basuki Tjahaja P. (Ahok)



Irman Gusman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시장 개척과 청년일자리 창출 방안 마련을 위해 인도네시아를 방문 중인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방문 첫 날 이르만 구스만(Irman Gusman) 인도네시아 상원의장을 만나 경기도의 아세안 시장 진출과 청년일자리 창출 방안 등을 협의했다.

### 방문 첫날, 인니 이르만 구스만 상원의장과 IT·투자 협력 논의

- 아세안 단일시장 출범 계기 교역확대와 청년 창업지원 협력 방안 등 협의
- 목탄 아세안 사무차장과의 면담. 통상·투자확대 기대 전달
- 인도네시아 주립대학 방문, 청년일자리 창출 위한 협력방안 모색

남 지사는 현지시각 11일 오전 10시 자카르타시에 위치한 인도네시아 의회 상원의장실에서 이르만 구스만 상원의장과 만난 자리에서 “경기도는 판교와 제2판교 등 미국 실리콘 벨리와 같은 스타트업 기업을 위한 인프라를 갖고 있다.”며 “인도네시아 같은 IT 강국의 젊은이와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교류할 수 있는 새로운 IT프로그램을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르만 구스만 의장은 직접 인도네시아 지도를 펼쳐 보이며 수마트라와 자바지역이 인도네시아

전체 경제 규모의 80%를 차지한다. 동부지역에 대한 발전이 인도네시아의 숙제 “라며 ” 인도네시아 각 주와 경기도와의 협력이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며 지자체간 협력을 강조했다.

### 둘째 날, 자카르타주와 청년인재교류, 보건 의료분야 협력 합의

- 12일 푸르나마 자카르타주지사와 상호 청년인재 초청연수 등 합의
- 청년 일자리와 비즈니스 기회 확대 위한 글로벌 창업지원 프로그램 실시 기대
- 지페어 2016 자카르타 개최도 추진
- 인니의료인 연수 등 보건의료협력 추진과 여성개발센터 건립 재개도 합의
- 푸안 마하라니 인니 인력개발 사회복지분야 조정장관과의 면담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시장 개척과 청년일자리 창출 방안 마련을 위해 인도네시아를 방문 중인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주와 양 지역 청년인재 교류 연수 프로그램, 여성능력개발센터 건립, 경기 지페어(G-Fair)의 자카르타 개최 등에 합의했다.

남 지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시장 개척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10~15일까지 4박 6일 일정으로 아세안 거점국인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를 방문했다.



## 한국자유총연맹 쓰레기줍기행사 Clean Indonesia Campaign

**한**국자유총연맹 인도네시아지부(회장 현상범, 이하 자총인니지부)는 5월9일(토) 자카르타의 모나스 공원에서 자연사랑 행사 ‘Clean Indonesia Campaign’ 을 실시했다.

자카르타 시의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자연사랑 행사에는 자총인니지부 회원들과 조태영 대사를 비롯한 한국대사관 직원, 반동한사모, UI 대학생들 및 KOICA 봉사단원 그리고 자카르타 시청 관계자, 인니 Boy Scout 및 학생 등 약 170여명이 참가했다.

2013년 쩌보다스 국립공원에서 시작한 ‘Clean Indonesia Campaign’ 행사는 인도네시아인들에게 자연 사랑과 환경보호의 소중함을 알리면서 깨끗한 자카르타, 깨끗한 인도네시아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조태영 대사는 인사말에서 “자총인니지부의 크린 인도네시아 캠페인 개최에 감사한다” 며 “한국 정부는 자카르타 주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환경미화 사업에 적극 협력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자카르타 시청 관계자는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외국인들 중에서 특별히 한국인들이 자연사랑에도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인니인들과 더불어 깨끗하고 건강한 시민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보람 있는 일로 생각한다” 며 “앞으로 양국 간에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긴밀한 관계로 발전되기를 기대하고, 자총인니지부가 이러한 활동을 적극 실천하는데 앞장서는 단체로 위상을 높여 나가기를 바란다” 고 참가소감을 전했다.

자총인니지부 관계자는 “이런 행사를 통하여 한인 동포 자녀들은 물론 장차 이 나라를 이끌고 나갈 인니청소년들에게 자연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개척자정신을 고취 시키고자 하며,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노력과 활동을 수행해 나갈 것” 이라고 강조했다.

자총인니지부는 이날 행사에서 자카르타시에 쓰레기통 세트를 기증하였다.

## 아시아 헌법재판소연합 사무처장회의



아시아 헌법재판소연합 사무처장회의가 5월 25일, 26일 양일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렸다.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는 김용헌 사무처장이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는 내년 4월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될 아시아 헌법재판소연합 제3차 총회를 앞두고 안건 사전 토의 및 사무처간 교류

협력 강화하기 위하여 개최되었다. 13개 회원국 사무처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용헌 사무처장은 아시아 헌법재판소연합의 안정적 발전을 위하여 세계 헌법재판의 흐름을 선도하고 있는 대한민국 서울에 상설사무국을 유치할 것을 제안하여 회원기관 전원(불참한 몽골은 서면으로 지지)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상설사무국의 서울 유치는 금년 8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릴 준비이사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아시아 헌법재판소연합은 아시아의 민주주의 발전과 법치주의의 실현, 국민의 기본적 인권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2010년 7월 창설된 아시아 지역 헌법재판기관 협의체로, 현재 대한민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몽골, 터키 등 14개국 헌법재판기관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이번 회의에는 몽골 불참). 아시아 헌법재판소연합 창립총회는 2012년 5월 서울에서 개최되었고, 제2차 총회는 2014년 4월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되었다.



## CJ그룹, 투자 및 사업 성공 공로 인정 인도네시아 정부 표창 수상

CJ그룹(회장 이재현)의 인도네시아 사업과 투자활동이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큰 주목을 받고 있다.

CJ그룹은 지난 5월 7일,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주최된 “한-인니 투자포럼 만찬회”에서 인도네시아 내 투자와 성공적인 사업 추진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청장 Franky Sibarani)으로부터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프랭키 시바라니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장은 “CJ그룹은 1988년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이후 지난 25년간 약 10억불을 투자해 바이오, 사료, 축산, 물류, 베이커리, 레스토랑, 식품, 극장업 등 다양한 사업에 진출하였으며, 이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CJ그룹을 현지 진출에 성공한 한국 기업으로서 투자 및 사업 진출을 꾀하는 다른 한국 기업들에 대한 롤 모델로 꼽고 있다”고 밝혔으며, CJ그룹을 포함한 수많은 한국 기업들의 지속적인 인도네시아 투자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하였다.

금번 투자포럼에서 CJ그룹의 인도네시아 사업 성과와 성공 노하우 등을 발표한 CJ인도네시아 손용 총괄대표는 CJ그룹이 ‘맞춤형 현지화 전략’으로 인도네시아 종교와 문화를 근무환경에 반영하고 각종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추진해왔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손용 대표는 CJ그룹은 외자기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인도네시아 정부 등과의 동반자 관계 구축을 위해 현지 고위급 인사인 켄트 손탁고문을 통한 경영활동을 소개하여 참석한 한국기업의 많은 공감을 얻었다.

한편 CJ그룹은 “2013년 한.인도네시아 CSR(기업사회공헌)포럼”에서 최고상인 한국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을 수상했으며, “2012년 인도네시아 투자설명회”에서 대표적인 성공 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인도네시아 현지 진출에 성공한 대표적인 한국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굳혀가고 있다.

사진 설명 : 이재욱 CJ그룹 부회장(왼쪽)이 인도네시아 정부표창을 수상한 후 프랭키 시바라니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장(오른쪽)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붓과 렌즈로 보는 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에서 이태복 작가의 그림전과 김성월 여행작가의 사진전 ‘붓과 렌즈로 보는 인도네시아’가 21일 개최됐다.

이번 전시회는 이태복 작가의 인도네시아의 삶과 잔잔한 풍경이 그려진 15점의 작품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주려고 칼바람이 부는 날 군고구마 봉지를 품안에 넣어오는 어미의 심정으로 오지의 사람들을 렌즈에 담아 내놓은 풍물사진 36점이 21부터 26일까지 6일간 전시됐다.

이태복 작가는 2015년 계간문학지 ‘문장’ 시로 등단하여 한국문협인도네시아지부 회원, 한인포스트 기자, 칼럼리스트, 라디오 방송 진행자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김성월작가는 여행작가, 수필가 및 T.V 방송 프리랜서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4년 동안 한인뉴스의 ‘별과 달이 비추는 오지의 마을’을 연재했다. 저서로는 ‘인도네시아 그 섬에서 멈추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등이 있다.

이태복 작가는 “인도네시아 23년 흠과 물이 내 육신의 일부가 되고, 문화는 나의 혼을 적시고 그림을 통해 그들과 대화하는 법을 배웠다”며 “자신이 추구하는 아름다움을 찾으며 행복을 찾아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성월 작가는 “내가 알고 있는 형용사를 전부 동원하여 설명한다고 한들, 그 순간의 모습들과



소리와 향기가 에누리 없이 그대로 전해질까? 셔터를 누르던 그때 나의 감정과 지금 사진을 바라보는 관객의 감정이 일치할 수만 있다면 나는 더 없이 행복하다”며 “그들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꼭 전해 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사진에 담았다”고 말했다.

한인회 신기엽회장은 “이태복 작가과 김성월 작가는 평소 여러 영역에서 한인사회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는 분들로서, 바쁜 일상 가운데 훌륭한 작품을 준비하여 우리 동포들로 하여금 문화의 향기에 흠뻑 취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주신 그 열정에 감사하다”며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 SILLA-UMN 코리아센터



5월 29일, 땅그랑소재 UMN(Universitas Multimedia Nusantara) 과 한국 신라대학교가 협력하여 UMN 에 “SILLA-UMN 코리아센터” 개관식이 열렸다.

7천명의 학생이 재학 중인 이 학교에서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인도네시아 학생들이 모임 “Qorie”



를 만들어 한국어, K-pop, 태권도 등을 배우고 익히며 활발한 활동을 하고있다.

UMN 광태웅매니저는 “이번에 신설된 코리아센터에서는 한국어강좌를 비롯, 다양한 문화강좌가 진행될 예정이고 다문화 가정의 장학금지원방안 등 계획하고 있다” 고 밝혔다.

이후 불우이웃돕기 쌀기증식도 가졌다.

축하공연으로 대금연주, 난타공연, 상모판굿이 있었다.



## 코원, 사랑의 집짓기 헤비타트 봉사

세계 한민족 여성 네트워크(이하 코원) 인도네시아 지부에서는 사랑의 집 짓기 운동 “헤비타트”에 참여, 불우 이웃을 위한 주택 1채를 마련했다. 기본공사가 마무리 된 23일에는 코원 회원들이 페인트로 단장하는 작업에 참여했다.

“코원 001호” 라고 명명된 스펀에 마련된 작은 주택의 입주자는 63세의 여성 독거노인으로, 봉사에 참여한 코원 회원들에게 수줍은 감사를 전했다. 집 안팎의 페인트 단장은 회원들의 열정 어린 참여로 예정시간보다 1시간 반이나 앞당겨 완성되었으며, 봉사작업을 지휘한 헤비타트 직원 Andry는 한국여성의 신속하고 진지한 태도에 놀라움을 표하기도 했다.

봉사에 참여한 회원들도 “수많은 단체가 난립하여 선의가 있어도 선뜻 참여하지 못하여 아쉬웠는데, 진정으로 봉사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 라며



앞으로 코원 002호, 코원 003호 작업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박현순 코원 인도네시아 담당관은 “편히 쉬고 싶은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코원 회원들의 아름다운 마음에 갈채를 보낸다. 앞으로도 의미 있는 활동을 이어나가자” 고 격려했다.

한편 코원 인도네시아는 대 교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입시를 앞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주니어 리더십 캠프’ 를 이어갈 예정이다.

[자카르타 경제신문]

# CBMC(기독실업인회) 제5회 교회연합 탁구대회 개최

## 13개 교회 20개 팀 참가... 130명 선수출전 사상 최대규모

자카르타한인연합교회(담임목사 김학진, 이하, 연합교회)가 교회대항 탁구대회 CBMC 컵을 3년 만에 탈환했다.

인도네시아 한인 CBMC(기독실업인회 연합회장 이수일 대표, 대회장 전영돈 대표)가 주최하고 한인 목회자협의회, 인도네시아 대한체육회가 후원하는 제5회 교회연합 CBMC 탁구대회는 지난 5월 16일 자카르타한인국제학교 JIKS 대강당에서 열렸다.

제5회 대회에서 연합교회는 A,B팀으로 출전하여 A팀은 결승전에서 동부교회팀을 이기고 결승에 진출한 주님의교회 팀을 3:1로 물리치고 우승컵을 거머쥐었다. 연합교회 A팀은 남자 단식 안혜중, 여자 단식 황길복 선수를 중심으로 5개부반에서 윤두용 최정민 송영옥 최선미 박영수 김학진 선수들이 조합을 이루며 각 상대방 팀을 물리쳤다.

4강전에서는 대회 최강인 연합, 교민교회팀이 만나 사실상 결승전을 방불케 했다.

교민교회 A팀은 경기초반 최강 에이스인 남자 단식 이광선, 여자 단식 장사연 선수를 앞세워 대등한 경기 끝에 연합교회 안혜중, 황길복 선수를 물리치고 2:0으로 앞섰다. 이후 연합교회팀은 남자 복식과 여자복식, 혼합복식에서 이겨 3:2로 역전하고 결승에 진출했다.

제5회 CBMC 탁구대회는 우승 연합교회, 준우승 주님의교회, 3위 교민교회, 4위 동부교회가 차지하며 경기를 마쳤다.



이번 대회는 13개 교회에서 19개팀이 출전했고 출전선수만 130명이 참가하는 사상 최대규모로 치러졌다. 출전교회는 교민(김재봉 목사), 늘푸른(김신섭 목사), 동부(최진기 목사), 믿음(이재정 목사), 엘 오아시스(정창렬 목사), 연합(김학진 목사), 열린(김용구 목사), 열방(송광옥 목사), 주님의(김환일 목사), 참빛(박윤길 목사), 한마음(장영수 목사), 찰레곤 늘푸른(황중윤 목사), 찌까랑 임마누엘(김성주 목사)이다.

탁구 5강 팀으로는 연합, 주님의, 교민, 열린, 동부팀이 지역별 고루 분배되어 있으며 다른 출전팀에 선수들의 기량도 향상되어가고 있었다.

이번 대회를 주최한 전영돈 대회장은 “2011년 1회 대회 이후 여러 교회에서 탁구가 교인들 간의 친목 경기로 이어져 오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선수들의 기량이 해마다 좋아지고 있고 경기에 임하는 각 교회의 열기도 높아지고 있다”면서 “금년 5회 대회가 교회와 성도간에 친선과 연합의 통로가 되고 앞으로 더 많은 교회가 참가하여 인도네시아 한인 교회의 하나되는 모델로 계속 이어지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대회를 주최한 인도네시아 한인 CBMC, 기독실업인회 연합회는 땅거랑, 자카르타, 플라빠가딩, 보고르 지부에서 200여명이 회원으로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다.

[HANINPOST]





## 2015 자카르타 국제 음악경연대회

**재** 인도네시아 한인 음악협회는 5월 2일 자카르타 국제 음악 경연대회를 자카르타 한국 국제학교 나래홀에서 실시하였다.

외국 학생 16명과 한국 학생 58명이 피아노, 현악기, 관악기, 성악 부분에 참가를 하여 경연을 벌였고 5월 30일 한국 국제학교 나래 홀에서 한국 대사상(대상) 피아노 Brian Thomas (SPH-KARAWACI G.8), 한인회장상(최우수상) 피아노 이시현 (JIS G.5), 문예총회장상(우수상) 첼로 Heidi Imanda Cahyadi (Home School G.5) 이 상을 받았고 각 부분별 총 38명이 입상을 하여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상식에 앞서 열린 각 부분 1등 수상자들의 연주회는 학생들의 뛰어난 음악성을 보여 주었고 외국 학생 학부모들은 감동적인 음악회와 시상식에 감사를 표현했다.

재인니 음악협회는 2000년부터 청소년 음악회 오디션을 통해 청소년들이 연주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계기로 삼고 2014년에는 한국 학생들을 위한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이어 2015년 국제 자카르타 음악경연대회를 개최했다.

국제학교나 현지 학교에 공문을 통해 경연대회를 알리고 참가를 독려하는 문제가 처음 치르는 국제 대회이다 보니 어려움이 많았고, 이 나라 대회에 익숙해져있는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우리의 방식을 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재인니 음악협회에서 한국 선생님들의 존재를 알리고 한국 학생들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었으며 현지 학생들의 수준 높은 음악 실력도 볼 수 있었다.

이일하 음협회장은 “이제 처음 이루어진 국제 음악경연대회이기에 다소 어려운 점이 있었으나 내년에는 더 좋은 경연대회가 될 것을 확신한다. 외국인 포함 학생 74명의 학생들이 경연을 치루었고 48명의 입상자를 내었다. 입상자 연주에서 뛰어난 연주 실력을 과시 했으며 내년에도 적극 홍보하여 더 많은 참가자들이 경연을 치루도록 준비할 것” 이라고 밝혔다. “시상을 위해 참석해 주신 전남국 공사님과 배도운 한인회 수석 부회장님, 강희중 문예총 회장님, 참석해주신 김석기 한국 문화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고 덧붙였다.



## 또 뽕게 되어 감사합니다. 오래 오래 사세요



지난 5월 8일 어버이날, 부모님의 은혜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는 “어버이날” 이었습니다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이하여 땅그랑 반튼 한인회는 (하연수회장) 5월8일 땅그랑 태능갈비에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조촐한 행사를 가졌습니다. 2010년 땅그랑 반튼 한인회 발족 이후 매년 챙기는 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어버이날 행사였습니다.이날 어버이날 행사에는 12분의 어르신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매년 뽕게 되는 분들은 올해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뽕게 되어 반가웠고 올해 처음 뽕게 되는 분은 새로운 만남이 시작된다는 생각에 환한 웃음으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무료한 생활을 하고 계신 어르신들이 이날만큼은 활짝 웃는 모습을 보였기에 더 즐거웠고 언어와 문화가 낯선 타국에서 여는 잔치는 자녀들과 모시는 분들이 행사를 열면서 한편으로 미안했습니다. 하 연수회장의 인사에 이어 박의태님의 색소폰 연주에 어르신들이 멋진 노래로 화답하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잠시 동안이지만 색소폰 음악에 맞춰 함께한 분들과 열싸 안고 부루스도 추고 반주없이 손가락을 마이크 삼아 젊은 시절을 과시했습니다.

마냥 기쁘면서도 오래 앉아 있기 힘드셔서 모든이의 마음도 안타까워 시간을 줄여 드렸지만

“어머니 내년에 또 뽕게요” 라는 인사말에 “저쪽에서 안 부르면 내년에 또 올게” 라고 하신 어르신의 말씀에 가슴 한구석이 찡 해졌습니다.

작은 선물이지만 기쁘게 들고 가시는 어르신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어떤분들은 고국에 두고 오시고 또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에 두손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어르신들!!

건강히 오래오래 사시고 내년에 또 찾아 뽕겠습니다.



이어 5월 10일 땅그랑 찌꾸빠 찌뜨라야 에서 “땅그랑 반튼 한인회(하 연수회장)” 와 다문화 가정 후원회 “땅그랑 찌뜨라 꼬레아(전 덕천회

장)가 다문화 가정 자녀 55명과 학부모 및 참석자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어린이날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는 지역한인들과 함께 한바패 사물놀이 줄다리기 풍선 나르기 게임등 하루를 즐겁게 보내면서 지역인들이 준비한 선물 전달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다문화 가정이 밀집되어 있는 찌뜨라지역에 뜻을 모은 30여 회원이 함께하는 땅그랑 찌뜨라 꼬레아 장학회는 4년전부터 지역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매월 생필품과 장학회를 지원해 오다가 작년부터 한인회와 연합 장학금지원과 아울러 매년 어린이날 행사를 가지면서 다문화 가정들에게 꿈을 키

워주고 있습니다.특히 이지역은 80년대 이후 신발산업이 인도네시아로 진출하면서 다문화 가정들이 형성되었지만 늘 소외 받고 정체성 없이 살아가는 2세들의 안타까움을 지켜보던 전덕천 회장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뜻을 모아 도와 오다가 작년부터 땅그랑 반튼 한인회가 함께 발벗고 나섰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속에 한-인니가 함께 동반하는 미래에 다문화 자녀들이 한국인의 정체성으로 본인들의 행복과 아울러 큰 역할을 기대하고 꿈꾸기까지 많은 관심과 행정이 뒤 따라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땅그랑 이 태복 기자 taeboklee@yahoo.com



## 전시회 안내

재 인니 한인 미술협회 회원 6인의 그룹전이 한국 문화원에서 6월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간 계속 된다.

김라라 김현경 권미선 박정은 이주연 조영은등 총 6인 멤버들의 뜻이 모인 이번 전시회는 6인의 감성전 이라는 타이틀이 시사하듯 각자의 독특한 작업세계를 동양화 서양화 추상화 설치등 다양한 매체와 기법을 통해 각자의 개성을 엿볼수 있는 아주 특별한 전시가 될 것이다.

이번 전시를 기획한 미술 협회 이수진 회장은 이 전시를 계기로 회원들의 더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고 그림을 통해 문화 디플로머시에 일조할 수 있을거라는 포부를 밝혔다.

**6인의 감성전**  
Six Senses & Sensibilities  
in  
INDONESIA  
2015

2015. 6. 1 (Mon) ~ 6. 10 (Wed)  
10:00 am ~ 5:00 pm  
한국문화원 (Korean Cultural Center)  
Opening 2015. 6. 1 (Mon) 4:00pm

## 코이카, ITB에 사이버 보안센터 인계 통학버스 기증



**한** 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 김영목)이 반둥공과대학교(ITB)에 사이버보안연구개발센터 구축사업을 인계하고 통학버스를 기증했다.

우리나라 대외무상원조 전담기관인 코이카는 지난 8일 ITB 자띠낭고르 물띠 캠퍼스에서 김병관 코이카 인도네시아 사무소장과 까다르샤 수리아디 ITB 총장, 수와르노 전기공학부 학장 및 대학교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사업의 인계 및 통학버스 기증식을 열었다.

ITB 사이버보안연구개발센터 구축 사업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550만 달러를 투자한 사업으로, 인도네시아에 필요한 사이버 보안기술 연구 개발 및 전문 인력을 양성을 통해 이 센터를 관련 사업의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코이카는 사이버 보안 분야 현지 연구 역량 강화와 ITB 신캠퍼스 활성화를 위해 이 센터의 건물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보안, 문서보안, 모바일보안의 3개 사이버 보안 분야의 연구개발과 사이버 보안 분야 석사과정 개설 지원, 센터운영자문, 초청연수 및 현지 워크숍 등을 지원했다.

또한, 코이카는 글로벌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사업의 일환으로, 반둥지역 거리 아동과 가족이 자립할 수 있도록 가족의 일원을 센터 내에 위치한 학

교매점 직원과 이번에 기증한 버스기사로 채용하고, 빈곤 청소년에게 컴퓨터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역사회와 공생하는 협력무대를 제시하였다.

김병관 소장은 축사를 통해 “ITB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에 힘입어 이번 사업을 성공적으로 종료했다”며 “센터 인계와 통학버스 기증식을 계기로 향후 이 센터가 활성화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반둥공대 까다르샤 수리아디 총장은 코이카에 감사를 표하고, 이 사이버보안연구개발센터가 KOREA-ITB CSC(Computer Sciences Corporation)를 기반으로, 정보 보안 분야 기업과의 합동연구개발 활성화를 통해 인도네시아 ICT 분야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와르노 전자공학부 학장은 ‘ITB 사이버보안 연구개발센터는 코이카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역할 모델이며, 통학버스를 이용해 재학생들이 교육활동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코이카는 ‘ITB 사이버보안연구개발센터 구축사업의 인계 및 통학버스 기증식’ 이후에도 사이버 보안 분야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며, 향후 전자정부 추진을 위한 보안긴급대응 및 국가인증체계 구축사업에도 이 센터의 시설과 전문가를 활용할 예정이다.



## 코이카, 두산 인프라코어와 손잡고 기술협력사업 출범

**민**과 관이 손을 잡고 인도네시아 산업발전의 기반이 되는 중소기업의 공작기계 전문 기술인력 양성에 나선다.

정부 무상원조 전담기관인 코이카는 두산인프라코어와 함께 5월 18일 인도네시아 서부 자바 보고르(Bogor)에 위치한 인니 중소기업부 산하 SMESCO Hills에서 “인도네시아 중소기업 인력 공작기계 기술 향상 훈련 사업”의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코이카 인도네시아 사무소 김병관 소장, 두산인프라코어 이정근 전무, 인니 중소기업부 이와안 딘따(I Wayan Dipta) 차관, 중소기업 마케팅국 아흐마드 자바디(Ahmad Zabadi) 국장 등 양국 주요 인사 및 현지 언론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인도네시아는 자원 강국에서 제조업 등 산업국가로 발전하고 있으며, 실제 자동차 및 전자기기 산업이 각각 연평균 9.7%, 15.1%로 성장세를 보이는 등 향후 제조업의 발전가능성이 기대된다. 하지만 아직 현지 기술수준을 반영한 공작기계 교육 과정과 현지 기술강사 인력이 부족하여 이러한 산업을 뒷받침할 전문 기술인력을 제대로 육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코이카와 두산인프라코어는 인니 중소기업부와 협력 하에 ‘공작기계 기술학교’

를 운영, 전문 강사인력을 양성하고 현지 기술수준에 맞춘 커리큘럼과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이렇게 육성된 강사인력 및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중소기업 소속 기술인력들을 훈련함으로써 산업 전반에 지속적인 파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론 교육과 프로그램 교육, 현장 실습 교육으로 이루어지는 본 교육과정을 통해 훈련생들은 전문 기술과 교육기법을 습득한 전문 강사로 성장하게 되며, 교육생 중 성적 우수자는 한국으로 초청하여 현장 심화학습의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코이카 김병관 소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한국의 친구이자 동반자인 인도네시아의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며, “훈련생들이 기술을 배울 뿐만 아니라 주인의식을 가지고 국가와 사회 발전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실천하는 인재가 되기를 바란다” 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또한 중소기업부 와안 딘따 차관은 “인도네시아는 내실 있는 성장을 위하여 기술인력 양성이 필요하며, 동 기술학교가 인니 미래 기술의 발판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며 기대와 지지의 뜻을 밝혔다.

코이카는 앞으로도 우리나라 기업들과 협력하여 기업의 전문성을 활용해 인도네시아의 산업발전과 국민들의 자립기반역량을 기르는 민관협력 사업을 적극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 위기상황 대비 재외동포 비상연락망 정비

최근 예멘 내전, 네팔 지진 등 전세계적으로 다양한 위기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도 지진, 화산 폭발 등 자연재해 발생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대사관은 위기상황 대응 매뉴얼을 재정비하고 대사관과 한인사회간 효율적인 연락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우선 동포 여러분께서는 대사관에 재외국민 등록을 하여주시고 이미 등록하신 분들도 주소지, 연락처 등이 바뀔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외국민 등록은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당해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외국국적자 제외)이 대사관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대사관에 직접 방문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 2015.1.22.부터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어 해외 이주자(재외국민)의 주민등록말소제도가 폐지되고 재외국민에게도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이 발급되며, 이를 위한 주민등록신고서 의무적으로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은 국내 부동산 등기, 재산권 행사, 학생의 국내 학교 편입학, 재외국민특례입학 등에 필요한 해외거주사실 증빙서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등록 관련 세부 내용은 별첨 자료나 대사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인사회 내 각종 단체, 동호회 등에 가입하신 경우 정확한 연락처를 동 단체에 남겨두시면 비상시 대사관이 그러한 단체들을 통하여 해당되는 분의 소재를 확인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한편, 지난 4월 인도네시아에서 홀로 살던 우리 동포 2명이 각각 세상을 떠났지만 평소 주위의 한인들과 왕래가 드물어 1주일여 뒤에 사망이 알려진 사례가 있습니다. 서로 서로 주위의 동포들에게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상시에는 속히 대사관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http://idn.mofa.go.kr>



## 제6회 ‘인도네시아 이야기’ 인터넷 공모전

1. 주제 : 인도네시아 이야기
2. 원고 모집 기간 : 2015년 5월~7월31일 (문학탐방기 / 생활수기)
3. 원고분량 : 산문 부문 A4 2쪽에서~ 5쪽 / 시 부문 2편
4. 대상 : 학생(만14세 이상의 중고등학생), 일반인(성인)
5. 보내일 곳 : lovekoin@hotmail.com / milkway76@hanmail.net
6. 시상식 및 문학행사: 일시 추후발표
7. 시상내역 : 일반부, 학생부 별도 시상

\* 시상내역은 바뀔 수 있습니다.

| 상명   | 성인부 |                | 학생부 |              | 시상내역   |
|------|-----|----------------|-----|--------------|--------|
|      | 인원  | 시상             | 인원  | 시상           |        |
| 대상   | 1   | 주인니한국대사상       | 1   | 주ASEAN 대사상   | 상장과 부상 |
| 최우수상 | 1   | 재인니한인회장상       | 1   | 재인니상공회의소회장상  | 상장과 부상 |
| 우수상  | 1   | 한*인니문화연구원장상    | 1   |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장상 | 상장과 부상 |
| 우수상  | 1   | 한국문인협회인도네시아지부장 | 1   | 한*인니문화연구원상   | 상장과 부상 |
| 장려상  | 3   | 한*인니문화연구원상     | 3   | 한*인니문화연구원상   | 상장과 부상 |

붙임 ; (글자모양=바탕제, 글자크기=11, 행간=160%)

- ① 응모자는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반드시 표기할 것
- ② 원고는 위의 지정된 e-mail로 응모할 것
- ③ 응모작품은 제출일 이전 미발표된 순수창작물이어야 함
- ④ 이미 발표된 작품이나 표절로 판명된 경우 당선이 취소됨
- ⑤ 제출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음

후원: 제외동포재단 / PT.TAEWON INDONESIA / PT. PRATAMA ABADI  
PT. CIPTA ORION METAL / LOTTE MALL AVENUE

## 이민당국 등 외국인 단속관련 안내

1. 최근 이민국·외사과·노동부·검찰 4개 부처가 합동으로 외국인에 대한 단속(검문, 불시방문 조사 등)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동포사회에 회람되고 있습니다.
2. 대사관이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현재 외국인에 대한 이민청(본청) 차원의 단속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각 지역 이민청에서는 통상적인 업무로서 연중 체류자격 외 활동 및 불법체류자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3. 이민청 직원들은 단속 시 “집행명령서(Surat Perintah)”를 해당 외국인에게 제시해야 하므로, 이민청직원을 사칭하는 것으로 의심되거나 수상한 사람으로부터 위협을 받는 경우에는 상기 명령서를 제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집행명령서에는 해당 이민청직원의 소속사무소, 조사 등 권한의 범위, 사무소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정당한 단속권한이 있는 자인지 알 수 있음.

- 다만, 이민청직원이 이민법 위반혐의가 있다고 의심하는 경우에는 “집행명령서(Surat Perintah)”가 없이도 조사·단속이 가능하므로, 이 경우에는 이민청직원 신분증을 집행명령서 대신 제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분이 확인되지 않거나 단속을 사칭한 수상한 사람들로부터 부당한 위협을 받은 경우에는 대사관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사관 당직(긴급)전화 : 0811-852-446(평일 오후 4:30 ~ 익일 오전 8:30까지, 공휴일 및 주말은 24시간) 또는 영사과 대표전화 : 021-2967-2580 평일 오전 8:30 ~ 오후 4:30)

4. 한편, 최근 경찰에서는 마약 단속 등 범죄예방을 위해 불심검문을 실시하고 있으니 동포여러분께서는 가급적 신분증(여권 또는 KITAS) 원본을 소지하고, 원본이 없는 경우 사본이라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분증 사본 소지자의 경우 원본 소지자와 항상 연락이 가능토록 하여, 만일의 경우 원본제시를 요구하는 경우에 신속한 대비 필요

## 이 아름다운 만남

‘접시꽃 당신’ 도종환시인과 함께 하는  
한국문인협회 인도네시아지부 명사초정 시 낭송 및 문학 강연

지난 25일, 도종환시인과 한국문인협회 인도네시아지부(문인협회) 회원과의 좌담회가 한\*인니문화연구원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문인협회의 지난 발자취를 담은 문인협회문집, ‘사람과 문학’ 창간호 및 2호를 증정하였으며, 해외에서 활동 중인 문인들의 열정적인 활동에 도종환시인은 깊은 감동을 느낀다고 전했다.

사공경 회장은, “SNS로 인해, 모든 대화와 소통이 직설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외국에서 오랜 생활을 보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은 점점 더 모국어에 대한 갈증이 깊어가는 시기에 한국어를 가장 아름답게 사용하며 대중들이 좋아하는 시인이 오셨습니다.” 며 환영하였다.

이어 자카르타 한국문화원에서 ‘시에게 길을 묻다’ 를 주제로 한국문인협회 인도네시아지부 명사초정 시 낭송 및 문학 강연회가 열렸다. 동포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재외동포문화재단과 자카르타경제신문의 후원으로 이루어졌다. 도종환시인은 자작시인 ‘세 시에서 다섯 시 사이’ 를 직접 낭송하면서,



서, 우리의 인생시계는 어디에, 몇 시쯤 왔을까의 물음으로 강연회는 시작되었다.

“국회에 들어오니 시인 도종환은 이제 끝났다고 검은 근조(謹弔) 리본을 매단 화분을 보낸 문인이 있더군요”

차분한 음성으로 시작된 시인의 문학 강의는 많은 부분 공감의 삶을 이야기 하였다.

또, 강연회가 내내 문인협회 회원들의 도종환시인의 시 낭송이 있었으며, 특히, 내빈으로 오신 김승익 한국국제학교 교장과 신기엽 한인회장의 낭송이 인상적이었다.

도종환 29세에 결혼해 32세에 두 살배기 아들과 젖먹이 딸을 두고 떠난 아내에 대한 통절한 심정을 담은 시집 ‘접시꽃 당신’ 을 펴내 밀리언셀러 시인으로 각광받았던 그이었다. 그때에도 일각에서는 ‘시인 도종환’ 은 끝났다고 했단다. 슬픔을 팔아서 시를 쓴다는 비판이었다. 이후 다시 일어나 2006년 ‘해인으로 가는 길’ 이라는 시집을 내면서 문학 활동을 시작하고 작가회의 사무총장까지 이어지는 삶을 살았다.

그리고 지금은 국회에서 문학 진흥관련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도종환시인은 해외문학 지원에도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줄 것을 다짐하며, 강연회는 마무리 되었다.

다음 날, 자카르타 소재, Tugu Kunskring에서 조태영 주인도네시아대사의 초청으로 도종환시인과 문인협회 회원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

## JKS, DSME에서 진로 탐방 프로그램 실시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이하 JKS, 교장 김승익)에서는 지난 5월 13일(수)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하여 조선·해양 산업 분야에 관심이 있는 이공계 진학을 희망하는 재학생 16명이 참가한 가운데 대우조선해양 인도네시아 설계법인(이하 DSME, 법인대표 조태익) 자카르타 사무실에서 진로 탐방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진로 탐방은 사무실 투어와 부서 탐방, DSME 소개 동영상 시청, 해양산업 및 해양 설비와 기술에 대한 PPT 활용 설명회에 이어 조태익 법인 대표의 주제 강연 ‘꿈은 이루어진다.’를 통한 진로 멘토링 순으로 2시간가량 진행되었다.

JKS 학생들이 DSME 사무실에 도착한 시각은 오후 4시가 넘은 시각이었지만 인도네시아가 아닌 한국에 와 있다는 착각이 들만큼 잘 정돈된 넓은 사무실에는 150여명 가량 되는 현지인 직원들이 3D 영상으로 선박 및 해양 설비 설계 작업을 하느라 컴퓨터 앞을 지키고 있었다. 현지인 직원 대부분이 UI(인도네시아 국립대학)나 반둥 공대 등 인도네시아의 우수한 공대 엔지니어 출신 엘리트들이라고 한다.

각 부서별로 사무실을 돌아보는 동안 학생들은 각 담당 부서 관리자들로부터 인생 선배로서의 격려의 말과 함께 부서 업무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이후 회의장에 마련된 회사 소개 동영상과 해양 산업 및 해양 설비에 대한 PPT 자료를 활용한 설명을 통해 세계를 무대로 무한 역량을 발휘하게 될 한국의 조선 및 해양산업의 미래를 만날 수 있었다.

끝 순서로, 참가 학생들은 조태익 DSME 법인 대표의 ‘꿈은 이루어진다.’는 주제 강연을 통해 진로 멘토링 시간도 가졌다. 조태익 법인대표는 강연을 통해 불과 반세기 만에 Analogue 시대에서 Digital 시대와 IT 시대를 거쳐 Smart/



Connectivity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인류는 곧 Digilogue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임을, 최근 관심을 끄는 기술과 미래에 다가올 기술들을 사례로 쉽고 흥미 있게 소개하면서 ‘결국 기술이 세상을 바꾼다’고 역설하고 기술 발전에 따른 일과 직업 그리고 정치·경제·사회 등 인간의 삶의 전반에 걸친 변화에 관심을 가질 것을 학생들에게 당부하였다. 또한 꿈에 다가갈 수 있으려면 신중한 선택과 몰입을 통한 개인 역량 강화, 기회를 강점으로 만들 줄 아는 지혜와, 능동적인 참여와 협력적인 태도, 끊임없는 도전과 자기 계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강연에 앞서 조태익 법인대표는 학생들에게 “1980년~현재, 대우조선해양 재직”이라는 짧은 한 줄로 본인 자신을 소개하고 청소년기에 경험한 진로에 대한 갈등과 36년 동안 걸어온 외길 인생을 솔직 담백하게 풀어내었다. 조태익 법인대표의 우직한 삶의 이야기는 참가한 학생들에게 진로 선택의 중요성과 개인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석한 오운석(12학년) 학생은 회사의 각 부서를 돌아보고 설명을 듣는 동안 협업의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었으며, 진로 멘토링을 통해 진로에 관한 실제적인 정보를 접할 수 있어서 진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진로의 방향을 재점검 재확인할 수 있었던 뜻 깊은 시간이었다. “며 참석 소감을 말했다.



(학생기자 김교빈)



2015년 5월22일,  
JIS 졸업식(총220명의  
졸업생 중 한국인44명)

2015년 3월 5-7일: 전원 한국인으로 구성된 JIS 현악기 연주자 8명이 학교 대표로 뽀뽀 방콕에서 열린 2015 IASAS\* Cultural Conventions (문화 컨벤션) 음악부문에 참석했다. 이번 컨벤션에는 현악기 대표팀뿐만 아니라 관악기, 합창, 그리고 피아노 대표팀까지 총 29명의 JIS 학생들이 참석했다. JIS 대표팀 29명 중 16명이 한국인이었다. 학생들은 일년 동안 연습해온 실력을 뽀뽀내고, 전문가들과 워크샵, 그리고 다른 학교들과 협연을 해 멋진 공연을 선보였다.



\*IASAS (동남아 국제학교 연맹)는 자카르타 국제학교, 방콕 국제학교, 마닐라 국제학교, 쿠알라 룸푸르 국제학교, 싱가포르 미국학교, 그리고 대만 미국학교의 학생들이 11개의 대회 및 모임에 참가한다.



Luar Biasa 봉사클럽은 90% 이상 한국인 학생들이 참여하는 클럽이다. 이 봉사클럽은 장애를 가진 학생들과 그림 그리기, 종이접기 등 재미있는 놀이를 통해 아이들과 교감 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2015년 1월 29-31일: 방콕에서 열린 IASAS Swimming (수영) 대회에서 홍지웅 (12) 학생이 금메달 2개, 은메달 2개를 획득하고 JIS 학교 기록 4개를 갱신했다. 홍지웅 (12) 학생은 4년 동안 20개 중 학교의 11개 기록을 세웠다.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JIKS 교장 김승익)에서는 해마다 한국어능력시험(TOPIK)을 시행하여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외국인 및 재외동포의 한국어 학습 방향을 제시하고, 한국어 보급 확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42회 한국어능력시험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원서접수 : 2015.06.22(월) - 2015. 07.03(금) 09:00-15:30 방문 접수
2. 접수처 :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행정실(자카르타)
3. 응시료 및 준비물: TOPIK II 250.000 Rp, TOPIK I 150.000 Rp,  
사진 3매(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4. 시험일 및 시험시간 : 2015년 10월 18일(일)
5. 응시 자격
  -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외국인 및 재외동포
    - 한국어 학습자 및 국내 대학 유학 희망자
    - 국내·외 한국 기업체 및 공공기관 취업 희망자
    - 외국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재외국민
6. 응시자 유의 사항
  - 수험표는 시험당일 배부
  - 시험 시 감독관에게 반드시 신분증(여권, 외국인 등록증, KITAS)을 제시  
(신분증이 없을 경우 응시 불가)
  - 답안지 작성용 컴퓨터용 사인펜은 시험 당일 고사장에서 지급
7. 문의처
  - ①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고등부 교무실 및 행정실  
(TEL 844-4958 / 정재선(내선153), 노명화(내선343))
  - ② 족자카르타(가자마다 대학교 한국어과 담당자) : 027-451-3096(내선223)
  - ③ 발리(발리한국학교 담당자) : 0361-464-333
  - 자세한 사항은 JIKS 홈페이지(<http://www.jiks.com>)에서 확인 가능
8. 합격자 발표 : 2015. 11.27 (금) 예정
  - ※ 족자카르타 및 발리 원서 접수시기와 접수처는 해당 지역 담당자에게 문의 바람.





## 순간 & 영원



|사진| Skeeze Nutz / USA

손 위에 손을 걸어 잡으면  
그 온기 깊은 울림 되어  
혀보다 눈보다 더 많은 말을 나눈다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아픈 곳은 없는지  
용서하라고 사랑한다고  
늦지 않아서, 손잡을 수 있어서.

참 고맙다고...



## 2015년 5월 월간 경제 브리핑

제공:자카르타경제신문(pagi.co.id)

### 인도네시아, 자국 내 달러화 거래 금지

인도네시아 정부가 자국 내에서 미국 달러화 거래를 금지하고 자국 통화인 루피아화 사용을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했다.

30일 KOTRA 자카르타무역관에 의하면 인도네시아 금융 당국이 평가절하 추세를 보이는 루피아화 가치를 안정시키기 위해 지난 3월 31일부터 현금거래의 루피아화 사용을 강제하는 규정을 시행했으며, 오는 7월 1일부터 비현금거래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와 자금이체 등 거래 전 범위로 루피아화 사용이 의무화되며 상품과 서비스 가격을 모두 루피아로 표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개인이나 법인에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이번 조치로 인도네시아 기업과 거래를 하는 외국에 있는 기업은 직접적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수입 또는 수출을 하는 기업은 환율 변동 리스크에 노출되게 됐다.

코트라 관계자는 무역거래 시 인도네시아 거래 파트너의 환 리스크 헤지 필요성에 따라 대응해야 할 부분이 있으며, 현지에 진출해 직접 수출입을 하는 경우에는 자발적인 환 리스크에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수출입 거래뿐만 아니라 현지에서의 급여 지급, 각종 비용 지불 등 루피아화 사용 의무 규정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기획의 땅' 인도네시아로 몰리는 스타트업들

기업정보 공유 사이트 잡플래닛은 이달 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첫 번째 해외 법인을 설립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해외 진출의 첫 거점으로 중국을 제치고 인도네시아를 택한 것이다.

서울 본사에도 동남아 각국 출신의 현지인 직원을 채용해 국가별 서비스 기획과 마케팅을 맡겼다. 향후 자카르타를 기점으로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대만 등으로 진출할 계획이다.

윤신근 잡플래닛 공동대표는 “동남아 시장은 성장 속도가 중국만큼 빠르지만 현지 경쟁은 아직 중국만큼 치열하지 않다. 한국 스타트업이 도전해볼 만한 유인이 크다” 고 말했다.

최근 국내 우수 스타트업들이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 국가에 속속 둠지를 틀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매년 경제성장률이 5%를 웃돌 정도로 성장 속도가 빠르지만 인터넷 서비스와 스마트폰 보급률은 이제 막 기지개를 켜 수준이다. 현지 인터넷 기업과의 경쟁도 ‘레드 오션’이 된 중국처럼 치열하지 않다. 수도인 자카르타 인구만 1000만 명에 이르고 내수 비중이 60%에 육박하는 인도네시아는 한국 스타트업계에서 ‘넥스트 차이나’로 인식되고 있다.

인터넷 접속 환경이 개선되면서 무료 통화 수요가 늘고 있는 점은 동남아 시장의 특성 중 하나다. 이에 주목한 곳이 스마트폰용 무료 통화 애플리케이션(앱) ‘브릿지콜’을 서비스하는 브릿지모바일이다. 브릿지콜은 현재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홍콩 태국 등 동남아 7개국에 진출해 있다.

노상민 브릿지모바일 최고운영책임자(COO)는 “마케팅 테스트 당시 동남아 시장은 다른 지역에 비해 ‘무료통화’ 키워드에 민감한 반응을 나타냈다”며 “모바일 기기 보급은 늘고 음성 통화는 여전히 비싸게 인식되는 반면에 강한 커뮤니케이션 수요가 존재하는 곳이 동남아”라고 말했다.

대부분의 국내 스타트업이 구글플레이 플랫폼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동남아 시장의 매력이자. 정부 차단에 의해 구글플레이를 사용할 수 없는 중국 시장에서는 개별 앱 스토어 사업자와 협상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스포츠 스코어 중계 앱 ‘스코어센터 라이브’를 서비스하고 있는 실(SYL)은 지난해 16개 언어로 서비스를 확대해 구글플레이 마케팅 실험을 했다. 그 결과 구글플레이를 타고 들어온 해외 이용자 중 인도네시아인 이용자가 가장 많았다는 점을 확인한 뒤 올해부터 인도네시아 시장에 적극 진출할 계획을 갖고 있다.

국내 스타트업의 강점인 감성 마케팅도 동남아 시장을 잘 공략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한다. 네이버 ‘라인프렌즈’ 캐릭터 스티커는 서구권에 비해 모바일 대화 중 감정 표현 수요가 높은 동남아 시장에서 각광을 받은 바 있다.

## 아후 주지사 “아파트 입주인 신상명세 확실하게 하라”

자카르타특별주 주민등록관리국은 “최근 시내 아파트에서 불법 성매매와 마약 거래 등이 활개치고 있어 문제”라며 아파트 입주인 대상 신원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바수키 짜하야 뿌르나마(아후) 주지사는 아파트에서 입주인 현황을 상세히 관리하여 사전에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 같은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에디 시안뚜리 주민등록관리국장에 의하면 앞으로 당국은 아파트 거주자의 신분 증명서의 진위여부 및 서류상 거주지 일치여부 등과 함께, 생김새 등 구체적인 데이터를 최대한 수집할 계획이다.

에디 국장은 “아파트 입주인에게 불쾌감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다. 철저히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주민들의 협조를 부탁했다.

앞서 지난달에는 남부 자카르타 깔리바따 소재 아파트 ‘깔리바따 시티’에서 미성년 성매매 포주 역할을 하던 남성등 6명이 경찰 당국에 적발됐다.

이처럼 아파트에서 외국인 불법체류자, 마약거래 등 불법행위가 잦아지자 아후 주지사는 즉각 범죄방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그는 자카르타 경찰이 25일 남부 자카르타 꾸만 호텔에서 중국인과 대만인 31명을 사기 혐의 등으로 체포한 것을 예로 들며 “자카르타 내 거주자 관리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아후 주지사는 “의심스러운 외국인이 눈에 띄면 즉시보고를 원칙으로 하는 등 RT와 RW의 대표에게 책임을 부과하고 지역의 안전을 스스로 지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T는 행정단위 하위조직인 ‘반’을 RT는 ‘통’을 의미한다.

자카르타 주정부에 의하면 현재 주내에 281개 아파트와 저소득층을 위한 단지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41개 아파트의 관리자가 입주인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부터 주정부는 아파트도 일반 주택단지처럼 RT·RW제도를 시행할 것을 지시했으나 실제로 작동하는 곳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어, 아후 주지사는 RT·RW제도를 개정하고 체재 등을 추가한 주지사령을 올해 안에 시행하여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RT·RW를 제도화할 방침을 내비쳤다.



## PHOTO NEWS



로힝야족과 이슬람을 지지하는 시위세력이 27일 주 인도네시아 미얀마 대사관 앞에서 불교 승려 복장을 입힌 인형과 사진을 함께 태우며 과격 시위를 벌였다.



노동자들이 22일 반뜰주 켈레곤의 끄라까따우 반다르 사무드라 지역에 위치한 화물열차역에서 그레식과 스마랑을 연결하는 가스 송유관 건설사업에 필요한 파이프를 옮기기 위해 분주하다. 국영석유회사 뿌르타미나(PT. Pertamina)의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사업은 천연가스 시추 지역인 쯔뿌지역부터 그레식-스마랑까지 약 270km에 이르는 송유관의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 <인도네시아 역사 제 1차 세미나를 다녀와서>



작성 : 이연주

### 고대왕국, 스리위자야왕국과 마자빠히트왕국에 대하여

자 카르타에 와서 처음으로 간 곳은 모나스광장과 그 옆에 위치한 박물관이었다. 나는 낯선 곳을 가볼 때면 그 곳의 과거를 먼저 살피는 습관이 있다. 과거를 알아야 현재 그 곳의 모습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이다. 하지만 박물관을 살펴 본 후 더 의문스러워졌다. 많은 유물들이 네덜란드 통치 때 약탈당했고, 과거 유물을 보존하기 힘들었다는 설명이 있다 할지라도 현재 인도네시아의 종교나 문화와는 다른 유물이 전시관을 메우고 있는 것은 이해가 잘 되지 않았었다. 또한 족자카르타에는 규모와 심미에서 압도하는 불교사원과 힌두교 사원이 있지 않은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슬람인구가 살고 있는 나라에서 말이다. 게다가 박물관 옆에는 고딕양식의 웅장한 성당이 모스크를 마주하고 있으니, 오히려 모스크가 무색하였다.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던 차에 헤리티지 주최의 역사 세미나 공지를 보고 냉큼 신청을 했다. 세미나는 5월 5일과 5월 30일 2차례에 걸쳐 고대역사

와 근대역사를 주제로 진행된다. 그 중 1차 세미나가 <고대왕국, 스리위자야왕국과 마자빠히트왕국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서둘러 집을 나선 덕분에 장소에 일찍 도착할 수 있었다.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선 헤리티지도서관은 한국에서 보던 어느 도서관처럼 편안해보였다. 게다가 17층이라는 위치 덕분에 넓은 창으로 보이는 하늘이 유난히 맑게 보였고, 서가까지 따뜻하게 들어오는 빛은 너무 부드럽고 예뻐다. 세미나 준비를 위해 발각게 상기된 얼굴로 분주히 오가는 선생님들의 모습도 더불어 예뻐 보였다. 이걸 풍성했던 간식에 대한 답례인사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

편안한 분위기로 시작된 세미나는 회장님의 헤리티지코리아에 대한 짧은 소개와 세 명의 발표자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첫번째 발표는 4세기 꾸파이왕조부터 16세기 드막왕조까지 고대왕조의 종교와 문화를 개괄적으로 정리하였다. 놀랍게도 첫번째 발표에서 의문점이 풀리고 말았다. 2세기경부터 유입되어 온 불교와 힌두교는 넓은 지역에

전파되며 문화와 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었는데, 16세기 들어 온 이슬람지도자들에 의해 이슬람이 전파되며 힌두교와 불교는 박해를 당하고 말리와 산악지대로 쫓겨 간 것이다. 그래서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힌두교와 불교의 영향이 남아있다고 한다.

두번째 발표는 앞서 발표한 고대왕족 중에서 가장 번성하여 지금까지 인도네시아에 영향을 주고 있는 두 왕족 중 스리위자야 왕족에 대한 정리였다. 이 왕족은 2~13세기라는 오랫동안 해상을 점령하며 번성한 왕국으로 그 힘이 자바와 말레이반도까지 뻗쳐 동남아시아 무역의 핵심이었다고 한다. 게다가 무역을 기반으로 축적한 막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앞세워 이 왕족의 언어를 말레이와 인도네시아 열도의 무역언어로 사용하였고, 이것이 현대 말레이시아어와 인도네시아어로 발전하였다고 한다. 안타깝게도 이 왕조의 유물이나 기록은 아직 많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현재까지도 인도네시아의 자부심으로 곳곳에 흔적이 남아있다고 한다.

세번째 발표는 스리위자야왕조와 더불어 고대사에 가장 큰 왕국으로 꼽히는 마자빠히트왕조였다. 14~15세기경까지 번성했던 마자빠히트왕조는 단 시간에 영토를 넓히며 제국을 건설했는데, 이것이 오늘날의 인도네시아 영토의 기틀이 되었다고 한다. 또한 이 왕조의 명성은 인도네시아의 위대함의 상징이라고 한다. 조선왕조실록에도 이 왕조에 대한 언급이 있다고 하니 가히 그 영향력이 얼마나 방대하였을지 짐작할 수 있겠다.

세미나 발표를 위해 자료집을 정리하고 발표까지 진행한 세 분의 발표자들이 한 달 동안 자신이 맡은 왕조에 대한 문헌들과 씨름을 한 노고는 꼼꼼히 준비한 자료집을 통해 엿볼 수 있었다. 덕분에 나는 그 긴 시간을 쉽게 훑어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준비하는 과정에서 고대역사에 깊이 빠졌을 호사를 누리신 듯하여 부러움도 슬금슬금 올라왔다. 세 분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을까? 진행시간에 한정이 있었음이 안타까웠다. 또한 파워포인트를 이용하여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유물을 함께 보여주며 설명하는 것도 즐거웠다. 다음에 박물관을 또 간다면 나도 좀 더 많은 것이 보이리라 기대된다.

5월 30일에 있을 2차 세미나 주제는 근대사라고 한다. 지금 인도네시아에 있는 많은 유물이 네덜란드 통치시절 그들에 의해 발굴되고 유린된 것이 많다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보로부두르 사원이라는 이야기를 족자카르타 여행에서 들었다. 지금의 군부정치까지, 왜인지 우리의 근대사와 많이 닮아있다는 생각이 든다. 아마도 다음 세미나에서도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즐거운 마음으로 다음 만남을 기다리며 이 글을 마친다.





## 라울 뒤피, <창이 열린 실내>



작가: 라울 뒤피(Raoul Dufy, 1877~1953)

작품: 창이 열린 실내(Interior with open window) 1928,  
oil on canvas, 66x82cm



해는 매일 뜨고 진다.  
계절도 봄 여름 가을 겨울 늘 되풀이 된다.  
산과 바다는 변화가 있어도 늘 거기 그렇게 있다.  
사람만이 온 생명을 다하여 인생길을 단 한 번 지나간다.

이렇게 가벼워도 되는 것일까?

**라울 뒤피**(Raoul Dufy, 1877~1953)의 그림은 일단 가벼워서 페인팅이 아니라 드로잉으로 보인다. 유려한 선들 그러나 애매한 형태, 우연처럼 부딪치는 날 색들. 곳곳에 파라독스처럼 튀는 색의 불협화음. 그의 그림들을 보고 있자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란 결코 가볍지 않은 구절이 떠오른다. 밀란 쿤데라는 1929년에 태어났는데 이 그림은 1928년에 그려졌다. 라울 뒤피는 어떻게 그 시대에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되었을까?

그의 그림들은 “도대체 무엇이 걱정이고 무엇이 어렵습니까?” 하고 묻는다. 온갖 종류의 무거움, 책임, 사명, 굴레 등등을 먼지처럼 날려버린다. 그냥 즐겁다. 밝고 화사한 색으로 쉬운 감성을 거침없이 그렸다. 빛과 색의 축제와 같은 캔버스 어디에선가 음악도 흘러나오고 있다. 시간예술인 음악을 공간예술인 미술로 잡아내려면 이 정도의 유려한 필치여야 되지 않을까 싶다.

라울 뒤피는 궁핍한 집안의 9남매 맏이로 태어났다. 14살 어린 나이부터 가족을 부양하면서 미술공부를 했다. 그는 인상주의가 풍미하던 시대에 태어나서 근현대 미술을 두루 체득한다. 인상주의의 모네, 후기 인상주의의 세잔, 야수파의 마티스, 입체주의의 브라크를 차례로 섭렵하면서 결국엔 모든 사조들로부터 자유로워진다. 그는 순수회화 작품만이 아니라 일러스트레이션, 섬유, 패션, 디자인에서도 감각적이고 경쾌한 작품을 많이 제작해서 화가로서의 그의 업적이 폄하되기도 했다. 그러나 요즘의 미술동향을 보면 그는 시대를 앞서간 작가라고 하겠다. 자신의 감정과 이끌림에 정직하게 반응하면서 열정적으로 쏟아 냈기 때문이리라. 그렇게 가장 자기 자신의 본질에 충실하면 시대를 초월하는 작품이 나오는 법이다.

“나는 젊은 시절 음악과 바다에 사로잡혔었다.” 가난했지만 음악을 즐기는 예술적인 집안에서 성장한 그는 바다, 항구의 풍경들, 경마장, 음악을 평생에 걸쳐 그렸다. 바다로 미끄러져 나아가는 배들과 음악과 라울 뒤피의 거침없는 선과 색채는 하나로 어우러진다.

그의 방을 보자. 바로 앞에는 방의 내부가 보이는 거울이 있고, 거울 양 옆에는 바닷가 풍경이 보이는 커다란 문이 활짝 열려있다. 곧바로 베란다에 나가서 사람들을 부를 수 있고 번잡한 해변의 풍경에 어울릴 수 있는 분위기다. 방에는 누구라도 방문하여 쉴 수 있는 의자들이 넉넉하고 방의 한 가운데엔 상쾌한 카라꽃이 만발하고 있다. 바닷가를 바라보면서, 꽃향기 맡으며, 오른 쪽에 마구 쌓아놓은 책 더미에서 한 권 뽑아들고 앉아있고 싶다. 때로 세상살이에 지쳐서 무거워진 심신으로 어둑어둑한 계단과 복도를 지나..... 방문을 열었을 때, 이처럼 단순하고도 유쾌한 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단 한 번 지나가는 이 삶에서 누구나 자신만의 방을 지니고 있을 터이니.  
내가 만드는 “나만의 방”도 이렇듯 화사한 낙원이고 휴식이었으면 좋겠다.

글:김선옥(인니 미협회원/땅그랑문화원회화반 강사)



## 누군가에게 아름다운 배경이 되는 삶



서 미 숙 / 수필가, 시인  
gaeunsuh@hanmail.net

**창**가의 나뭇잎들은 언제나 푸르고 무성하다. 한때의 봄날이 가듯이 계절의 여왕이라고 불리던 5월도 가고 있다. 어느덧 6월과 함께 찾아온 초록의 꿈들은 또 다시 내일을 설계하라고 나 곳나곳 희망찬 이야기를 들려줄 것만 같다.

요즘 인도네시아의 날씨도 우기가 멈춘 탓인지 얼핏 고국의 계절 6월을 연상케 한다. 얼마 안 있어 햇빛이 쨍쨍한 건기로 접어들겠지만 마음만큼은 녹음으로 물든 초록의 향연에 흠뻑 젖어드는 느낌이다. 잠시 마음의 문을 열어보니 바람결에 날아온 초록의 함성이 바쁘게 지나는 삶을 살며시 노크한다.

사노라면 마음이 혼탁해지고 힘이 들 때가 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내 영혼에 잔잔한 쉼터가 되어주는 안도현 시인이 쓴 어른을 위한 동화 [관계]라는 책을 꺼내어 읽는다. 우리 마음 속 동심의 강에는 끝

없이 흐르는 흰 구름과 실개천을 따라 줄지어선 미루나무가 보인다. 세월이 흘러도 바래지지 않는 영원한 빛깔로 자리한 녹색의 그림이다. 책속의 구절에서 문득 초록강과의 대화가 내 머릿속을 맴돌고 있다.

“이유 없는 삶이 있을까요?”

“이유 없는 삶이란 없지요, 이 세상 어디에도”

“그럼 삶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건 내가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는 그 자체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모두 나아닌 것들의 배경이 된다. 우리가 아닌 것의 배경이 될 수 있다. 도토리 안에 들어있는 갈참나무도 생명을 틔우기 위해 도토리를 품다가 썩어 거름이 되는 낙엽, 연어의 삶을 완성하도록 길을 틔워주는 초록 강처럼 자연의 순리에 따라 배경으로 동참한다는 안도현 시인만의 표현법이 내 가슴에 와 닿는다.

우리가 살다보면 이곳저곳에서 배경이라는 낱말을 자주 접한다. 소설에서도 등장인물과 사건의 때와 장소를 알려주는 배경이 있기에 간혹 소설을 읽는 독자들은 그것이 허구임에도 재미와 현장감을 느끼고 주인공에게 동화되는 생생한 체험을 한다. 소설을 읽다보면 배경은 주인공 못지않은 무게를 지니고 소설의 내용을 떠받친다. 모든 예술, 즉, 영화, 연극, 무용, 오페라에서도 배경은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시간과 장소는 물론이요, 장면마다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하는 작은 소품까지 배경이 맡는 역할은 무궁무진하다. 사진예술의 경우는 배경이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전문영역은 접어두더라도 우리 가정에서 소중히 취급되는 앨범을 펼쳐 봐도 알 수 있다. 아마도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만 찍혀 있다면 그다지 재미있지는 않을 것이다. 웃음 짓고, 찡그리고 어눌한 표정들은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지나온 시간을 실감케 하지만 인물 뒤의 배경 또한 우리를 추억속의 현장으로 달려가게 한다.

예를 들어 파리의 에펠탑 앞에서 포즈를 취한 가족사진을 들여다 볼 때면 에펠탑도 기억하지만 그때의 가족여행길에서 겪은 잔잔한 모험거리들도 두고두고 떠오르며 추억의 배경이 되어 다시금 되새기게 되는 것 같다.

언제나 우리에게 정서적으로 멋진 배경이 되어주는 자연역시도 그 자연을 형성하는 힘은 다양성속에 있다. 우리 인생의 다양성은 유년에서 노년까지 모자라는 것에서 넘치는 것까지, 작은 것에서 큰 것까지 모두가 포함되어 삶을 형성한다. 자연에서는 어떤 생물하나라도 다른 생물에 의해 소멸당

할 때 생태계 전체가 위협을 받는다고 한다. 자연은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물 없는 연어를 상상할 수 없듯이 낙엽 없는 도토리도 존재할 수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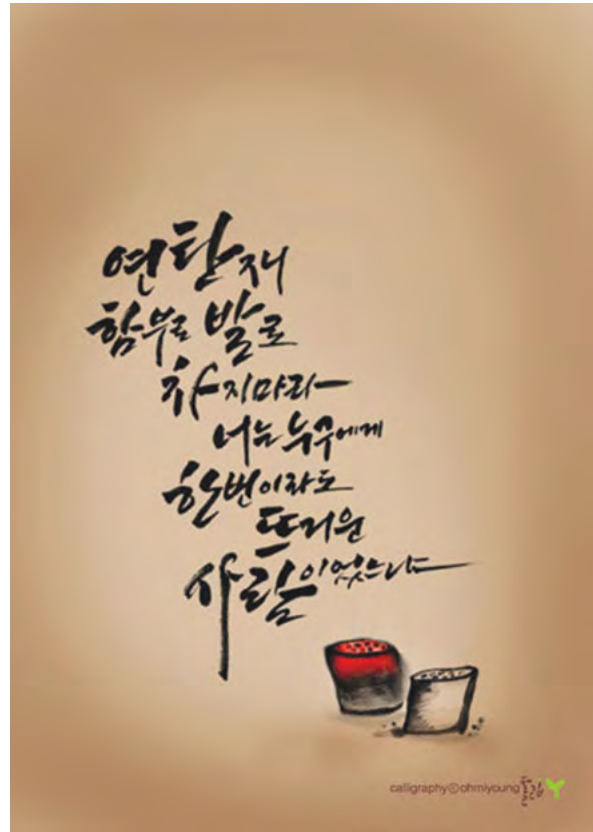
자연은 서로 생김새도 다양하고 맡은 역할이 다르지만 서로가 서로를 존재케 하는 중요한 배경이 되어준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 만약 시인과 독자와의 관계도 예를 들어 안도현 시인의 글을 읽고 좋은 시인이라고 고개를 끄덕인다면 독자들은 좋은 시인을 있게 하는 멋진 배경이 된다. 시인의 책이 책꽂이에 꽂혀 언제라도 우리들 마음속에 별이 되어 떠오르고 마음속의 꽃을 피운다면 그 시인은 우리의 영적 성장을 돕는 아름다운 배경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상대방과 이야기를 나눌 때에도 상대의 말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고 정성을 다해 응답한다면 그 경청하는 자세가 바로 상대방의 믿음직스러운 배경이 되어주는 것이리라. 일상에서 흔히 쓰는 이웃이라는 말도 마찬가지다. 나를 중심에 놓을 때 내가 이웃이고 상대방을 중심에 놓을 때 내가 이웃이듯이 주변이 있음으로 해서 내가 소중하고 내가 있음으로 해서 주위가 든든해지는 그런 관계를 [배경]이라는 낱말을 통해 시인은 표현해보고 싶었는지 모른다.



우리의 삶에서 그 존재자체로 배경이 되는 관계를 꼽으라면 바로 ‘어머니’ 라는 단어가 떠오른다. 아버지 또한 마찬가지다. 어머니라고 부르지만 해도 가슴이 따뜻해지고 눈가에 이슬이 맺히기도 한다. 세상에 생명을 내보내는 소명을 다하기 위하여 온 정성을 기울이는 어머니, 오직 자식이 건강하고 올바른 어른으로 성장할 때까지 늘 기도하고 조건 없는 사랑을 주는 어머니, 그토록 아름답고 위대하고 완벽한 배경이 이 세상 어디에 또 있을까?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배경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그런 어머니다운 아름답고 조건 없는 사랑의 배경은 쉽지 않다. 그렇지만 살아가면서 기꺼이 누군가에게 좋은 배경이 되어주는 삶에 우리는 과연 조그마한 마음이라도 열어놓고 있는 것일까 자문해 보곤 한다.

잠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자. 나는 과연 누구의 배경이 되어주고 있을까? 좋은 사람의 배경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를 이해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상대방이 이랬으면 좋겠는데 하고 바라는 건 배경이 되어주는 사람이 아닌 내 욕심의 투영이 아닐까? 상대방의 뜻이 올바른 일이라면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언제나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과 주변에 아름다운 배경이 되어주는 것이리라. ‘삶이란, 나 아닌 누구에게 기꺼이 연탄 한 장 되는 것’



- 안도현의 [연탄 한 장 중에서...] -

안도현 시인의 시구처럼 제 몸을 불태워 나 아닌 누구의 몸을 덮혀주고 하얗게 재가 된 다음에는 산산이 으깨어져 겨울날 얼어붙은 거리를 사람들이 마음 놓고 걸어갈 수 있게 길을 여는 삶, 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따뜻해진다. 그 아름답고 숭고한 배경, 마치 초록 강처럼, 낙엽처럼... 이 신록의 계절 6월에는 우리도 누군가에게 게 의미가 되는 아름다운 배경이 되고프다.



## 올라가지 않는 도개교 닭 시장 다리(Jembatan pasar ayam)

사공 경(한\*인니문화연구원장/한국문인협회인도네시아지부장)

후기 인상파 빈센트 반 고흐가 즐겨 그렸던 빨간색 도개교가 연상되는 이 다리를 보면 네덜란드 시절의 옛 영화를 생각나게 한다. 외양 박물관 뒤로 흐르는 찰리웅(Ciliwung) 강을 따라서 북쪽으로 걸어가면 1600 년대에 만들어진 네덜란드 식민 시절 마지막 남은 도개교를 만난다. 당시 네덜란드 인들은 자카르타를 암스테르담 식으로 조경하고 싶어 운하도 만들고 배가 드나들 때마다 다리가 열리는 재미있는 구조의 도개교를 만들었다. 원래는 세 개의 도개교가 있었지만 지금은 이 다리만 유일하게 남아 있다. 이 부근에는 식민시대의 건물이 많다. 도개교 앞에는 1997년 네덜란드 풍으로 만들어진 De Rivier(구OMNI BATAVIA) 호텔이 있다. 이곳을 중심으로 관광 지역을 만들 예정으로 호텔, 상가, 아파트를 만들었는데 IMF 경제위기 때문에 추진되지 못했다. 이 다리는 시대에 따라 명칭이 여러 번 바뀌었

다. 1628년 초에는 영국 요새와 네덜란드 요새를 연결해 주었기 때문에 ‘영국 다리’ 라고 불리었다. 1628년-1629년에 반뜰(Banten)과 마타람(Mataram) 왕국이 바타비아 요새를 공격할 때 이 다리가 무너졌고, 1년 후인 1630년에 네덜란드가 재건축했다. 당시 사람들은 큰 나무를 뜻하는 Groote boom 다리, 혹은 닭과 채소를 파는 시장 가까이에 있어서 닭 시장 다리(Jembatan Pasar Ayam) 혹은 네덜란드어로 De Hoender Pasarbrug 다리로 알려져 내려왔다. 후일 닭 시장이 있었던 곳은 배 수리하는 곳이 되었다. 그 후 홍수로 망가진 이 다리를 1655년 보수공사를 했고 중앙 다리(Jembatan pusat)라고 불리었다.(당시에 도시의 중심이었던 이 다리 가까이에 시청(현 역사박물관)이 위치하고 있었다.) 1938년 4월에 배의 동태를 감시하고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들어 올리는 도개교로 재건축하면서



마지막 남은 도개교. Jembatan Kota Intan  
원래 자카르타에는 세 개의 도개교가 있었다.  
350년의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름도 네덜란드 여왕의 이름 (Juliana Bernhard)으로 바뀌었다. 마지막으로 인도네시아 독립 선언 후에 네덜란드의 다이아몬드 요새가 있는 지역의 이름을 따서 'Kota Intan' 다리라고 불리게 되었다. 이처럼 다양하게 불리던 이 다리는 1980년대 개보수를 하면서 노면을 아스팔트로 고정시켜서 올라가지 않는 도개교가 되었으며 관광지로 운영되었다. 2000년에 자카르타 정부가 이 도개교를 복원하였다.

찢리웅 강 하상 만들어진 도개교 아래로 흐르는 kali besar 강은 순다 끌라빠 항까지 연결된다. 이 다리 밑으로 얼마나 많은 착취물이 빠져나갔을까. 눈부신 태양이 강물에 부서지듯 인도네시아인들의 삶의 꿈은 허망하게 흩어졌다. 다리 밑 운하에 물길 지워지듯 그들의 꿈도 그렇게 지워졌을까. 사랑도 꿈도 묶어버린 그들. 올라가지 않는 도개교처럼 그들의 삶도 저물어 갔으리라. 그러나 식민시대의 고통과 한을 넘어서 그들의 열정은 남아 있는 듯하다. 고흐의 열정적인 삶과 죽음을 상징하는 듯한 붉은 색의 도개교처럼. 이 다리는 오늘도 말한다. 올라가지 않는 꿈과 자유를 위해 찢리웅 강을 따라 더 큰 바다로 나가고 싶다고. 이것이 오늘, 이 다리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다.  
Jl. Kali Besar, Roa Malaka, Tambora,  
Jakarta Barat

한.인니 문화연구원 www.lkcs.kr

## KOTA TUA 탐방

자카르타의 유럽 KOTA TUA

탐방을 진행할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바타비아의 역사를 간직한 파타힐라 광장에서 네덜란드 시대로의 여행을 안내할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한.인니 문화연구원의 오랜 경험을 나누고 함께 역사를 공부하면서 꼬마 뚜아 전문 탐방가로 거듭 날 수 있는 알찬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제1차 교육: 5월 23일 (토) 9시-12시

2차, 3차 교육은 추후발표

강사: 원장 사공경 0816-190-9976

Email: sagong@hotmail.com

연락처: 팀장 최문정 085282662293

매월 첫째주 토요일(9시-12시) 정기탐방 예정.  
# 9월 5일(토)부터 진행됩니다.



## 삶과 죽음의 경계가 없는 마을, 따나 또라자 (Tana Toraja) 제 1편

따나 또라자에 오면 ‘문화는 항상 살아남는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또라자는 1,500년 전에 형성된 도시이다. 이곳에서 아주 오랫동안 거주해온 사람들의 모든 방식과 마주하면 개별로서의 인간은 나약한 존재지만 집단으로서, 문화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를 역설적으로 알게 된다. 이러한 체험은 어쩌면 자신의 가치관을 되흔들 수도 있을 터이다. 이들은 독특한 장례 문화로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닌 영원히 같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죽음에 대한 인식과 장례의식은 문명과 자연, 개화와 미개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과거 쪽에서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는 시선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는 소중한 기회를 따나 또라자는 던져주고 있다.

술라웨시에 있는 마카사르에서도 8시간 이상을 차를 타고 가야 만날 수 있는 이 마을의 첫 느낌은 묵직하다. 또라자는 술라웨시어로 ‘산에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지만, 과수가 풍부하고 땅이 비옥하여 어디서든 농경지와 한가로운 물소 떼들이 논밭을 오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

따나 또라자는 해발 300미터에서 2,884미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토지가 3,657 제곱킬로미터를 덮고 있는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고원이다. 거친 바위 절벽과 깎아내린 듯 한 석회암 절벽이 곳곳에 나타난다. 네덜란드 식민지 시절의 영향으로 또라자 족 종교는 95%가 크리스트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또라자 족의 정신과 생활을 지배하는 건 토속신앙인 알록 또돌로(Aluk Todolo)이다. 인니 정부도 1969년 공식 민간신앙으로 지정하였다.

또라자는 농업사회이고 주식은 쌀이다. 잔치를 위한 물소와 돼지고기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 물소는 소중히 보살핌을 받는 귀한 짐승으로 쟁기를 매지 않는다. 물소의 연령, 색, 흰 빛깔, 뿔의 길이, 꼬리 등은 의식 때 제물로 바쳐질 때 그 가치를 결정하는데 중요하다. 가장 멋진 황소는 마지막 피날레를 위해 준비된다. 매우 귀중한 얼룩무늬 물소 품종인 tedong bonga는 수요의 증가와 광적인 관심으로 인해 급속히 그 수가 줄어들었다. 돼지고기도 주된 의식에 사용되는 음식이지만 일상 식단에도 오른다. 커피, 정향나무, 관광업도 이 지역의 주요 수입원이다.



### 화려한 색깔의 tau tau가 있는 Lemo 암굴 묘

Lemo는 16세기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특별한 귀족을 위해 만들어진 암굴 묘다. 암벽에 3x5 미터의 홀을 만들어 한 가족묘로 만든다. 구멍에 시신을 넣고, 그 앞은 나무문이나 대나무 커버로 덮여 있다. 그리고 따우따우(tau tau)라는 고인(故人)의 특징을 잘 살려서 만든 나무인형을 묘 앞에 세워둔다. 이곳에는 70여개의 tau tau가 있는데, 지혜 있고 존경 받는 사람만이 이를 만들 자격이 있다고 한다. 따우따우는 왼손이 아래를 향하고, 오른손은 위를 향하여 있다. 아래를 향하는 왼손은 자손들의 삶에 함께 남아 축복을 주고, 위로 향한 오른손은 자손에게 축복이 내리도록 하늘에 기원하다는 의미이다. 레모라는 이름 자체는, 무덤이 굴나무 모양처럼 생겼다 해서 생긴 이름이다.

### Sangalla 왕족의 묘지, Tampangallo

Suaya 지역에 있으며 16세기, Sangalla 왕국의 장사지이다. 왕비가 죽어서, Tampangallo에 먼저 묻히게 되었고, 그 후 왕도 죽었는데 시신이 없어졌다. 왕의 유해가 왕비의 관 옆에서 발견되었다고 한다. 이때부터 합장하는 풍습이 생겼다고 한다. 사방은 온통 허물어져 가는 관과 해골과 유해뿐인데 허공의 무계에 빛살 일렁이는 사랑 노래가 흐른다.

### 아가들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 Baby cave Kambira

높은 산길을 올라 조용한 숲 속에 있는 Baby cave에는 아가들의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한다. 나무가 주는 신성함과 장수를 염원하는 사람들의 믿음으로, “따라(Tarra)” 로 불리는 나무에 공간을 만들어 한 돌이 되기 전 떠난 아가들을 위한 무덤을 만들었다. 이 나무는 튼실하며 수분을 많이 품고 있어, 엄마 대신 젖도 주는 엄마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새도 아가들도 두려움에 떨며 나무어미 품으로 파고든다.부모의 신분에 따라 나무무덤 위치도 다르다. 귀족은 가장 높은 곳, 평민은 중간, 천민은 아래 공간이다. 26년 전부터 나무의 이른 고사로 인하여 더 이상 나무무덤은 만들지 않고 가족묘에 함께 안치한다고 한다. 현재 네 곳의 나무무덤 만이 남아 있다. 그들은 죽은 어른들은 소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지만, 아이들은 높은 나무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고 믿는다.







### 높은 절벽에 위치한 Londa 묘지

석회암 절벽에 만들어진 이 무덤도 바깥에는 tau tau로 장식 되어 있다. 바위 무덤과 발코니가 고인의 조각상들로 가득 차 있다. 후손들은 조상이 높은 발코니에 서서 내려다보기 때문에 언제나 각성의 날이 서 있으리라. 절벽 발코니에 늘어선 조각상의 성별, 나이, 얼굴 표정과 옷을 통해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있으며, 학위가 높거나, 귀족인 경우는 절벽의 높은 곳에 위치한다고 한다. 죽은 자가 부를 가지고 갈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높은 곳에 장례를 하는 것은 도둑을 방지하고, 죽은 자가 가지고 있던 부를 대대손손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여기저기 뼈들이 흩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관이 썩기 때문에 유골만 남은 것이다.

### 전통 양식의 Tongkonan으로 이루어진 예쁜 마을 Kete kesu

또라자 귀족 중에도 최고 귀족들의 마을인 Kete kesu에는 500년 전부터 사용 했을 것으로 추정 되는 돌무덤에 많은 유물이 보존되어 있다. 모든 무덤이 돌 절벽이나 동굴에 매달려있어 웅장해 보이기까지 한다. 또라자 장례의 특징 중 하나인

고인을 살아생전의 모습으로 조각하여 돌무덤 앞에 장식 한 tau tau는 후손들이 15년 후에 새로운 옷으로 갈아 입혀 준다고 한다. tau tau는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철창 안에 보관되어 있다. 전통 관(erong)은 주로 배 모양이나, 버팔로와 돼지 형상도 있다. 관이 오래 되어 낡아 부서질 경우 고인의 유골은 앞쪽으로 진열해 놓는다. 고인이 생전 좋아하던 유품을 가져다 놓기도 하고, 그들을 추억 할 수 있는 많은 물건들도 함께 안장한다. 이곳은 관광명소로 개방되어, 기념품 가게들이 즐비해 있다. 기념품 가게를 지나 돌무덤으로 가기 전에 다른 형태의 무덤을 볼 수 있다. 부드러운 석회암 절벽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tongkonan의 형태로 된 무덤 내부의 땅에 묻히게 된다. 그 앞에 고인의 동상이 서 있다. Kete kesu에는 300년 정도 된 6채의 tongkonan이 있고, 그 앞에 12채의 곡식 저장 Tongkonan이 있다. 또라자 곳곳에서 똥꼬난을 볼 수 있지만 이곳에 줄지어 서 있는 Tongkonan은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과 더불어 예술작품으로 다가온다.



따나 또라자는 삶이 죽음이고 그 죽음 후도 여전히 함께 한다는, 그 경계 없음이 주는 평온함으로 죽음을 추억으로 얘기 할 수 있는 곳이다. 오랜 시간이 흐르면 영혼의 이름만 전설로 남게 되리라. 또라자에 현대문물이 밀려왔지만 신석기 시대의 흔적을 없앨 만큼 일찍 들어오지 않았다. 아직 시바 종교 같은 물소를 존중하는 것처럼 또라자의 문화는 특별하고 낭만적이고 흥미로운 과거의 유물이자 다가올 미래의 열쇠라고 할 수 있다. (한\*인니문화연구원, 다음 호에 제 2편이 연재됩니다.)





## 유행과 복고열풍을 쫓는 심리 문화복제자 밈(meme)

7080세대를 깨워준 ‘세시봉’ 이나 영화 ‘건축학개론’, ‘써니’ 의 복고 열풍은 2013년 드라마 ‘응답하라 1994’ 에서 만개되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첨단IT기술을 접목한 화려하면서도 눈부신 판타지성 SF물이 판치는가 하면 지나간 과거의 향수가 인기를 끄는 현상을 보인다. 말 그대로 장르를 넘나드는 다양한 문화콘텐츠가 사회현상의 한 트렌드로 이어지고 있다. 과연 복고나 유행이 사회적 현상으로 소비되는 심리는 무엇일까?

### 복고, 일시적 유행인가 대세적 흐름인가

세대와 남녀를 불문하고 요즘의 문화콘텐츠를 정의하자면 ‘유행과 복고’ 라 할 만하다. 흔히 복고라는 단어나 의미를 떠올리면 옛 것, 고리타분한 것, 유행에 뒤떨어진 것, 싸구려 제품 등등 그 가치를 폄하하기 일색이다. 흘러간 노랫가락쯤으로 여기는 복고에서 공감을 이끌어내기는 여간 쉽지 않다. 이런 현상은 비단 상품이나 제품에만 국한되는 현상이 아니라 영화나 음악과 같은 문화상품에까지 나타난다. 하지만 문화장르에서의 복고는 깊이가 있는데 한두 세대 이전의 문화 현상이 히스토리와 스토리텔링을 버무린 형태로 재현되는 경우, 흔히 ‘앤틱’ 이나 ‘빈티지’ 스타일로 불린다. 나름대로의 의미부여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사실 한물간 문화콘텐츠 소재는 사회 저변에 불황의 그림자가 스칠 때면 으레 나타나 소비를 이끌곤 했다. 최근 몇 년간은 세계금융위기 여파와 겹쳐 국내경기가 불황이다 못해 소비자 체감경기

도 얼어붙고 있다. 특히 베이비부머인 50대가 대거 정년을 맞는 시기가 도래하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이 겹쳐 더욱 이들의 지갑을 단게 만들고 있다. 끝없는 전세난, 자녀들의 과다한 선행학습, 지부진한 은퇴준비는 비단 베이비부머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체감경기를 확 끌어내리기에 충분하다. 그래서일까? 지난 몇 년 사이에 부쩍 4~50대를 위한 7080콘서트가 인기를 끌더니, 이젠 30대와 40대 초반을 위한 90년대 복고풍 음악이나 드라마가 뜨고 있다. 정말 불황기엔 복고 소비가 늘어나는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그 이면엔 복고풍 문화콘텐츠가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가 숨어있는 것 같다.

대중문화평론가들은 90년대에 대학을 다니면서 청춘을 보낸 X세대에 대해 이전 386세대보다 문 화적 추억이 풍부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 시기는 인터넷과 휴대폰이 대중화되기 시작하고,

서태지와 아이들이나 H.O.T를 위시한 팬클럽문화가 새롭게 나타났으며,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향유할 수 있는 민영방송국이나 케이블방송국이 속속 개국하던 시기다. 이전 세대가 누리던 문화와 달리 ‘웰메이드 상품’인 문화 아이템이 풍부했던 문화 황금기였다. 이 시기를 오롯이 온 몸으로 느끼며 성장한 지금의 30~40대가 요즘의 복고를 이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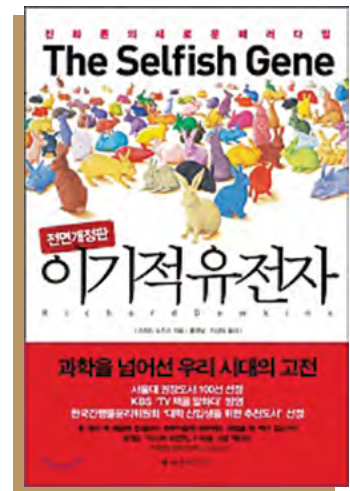
그렇다면 왜 하필 지금 이런 복고풍이 유행하는 걸까? 트렌드 전문가들은 끝 모를 불황과 불안한 미래에 대한 우울함, 갈수록 더해지는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거부감을 아날로그적 감성으로 위로 받으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아날로그적 감성 추구자들은 추억과 조우하면서 거부감 없이 지갑을 열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현재의 복고열풍이 일시적인 사회현상으로 머물지 않을 것이며, 복고풍 문화콘텐츠가 상품화되며 소비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우리나라 전체가 일종의 업사이클 현상을 맞이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지금처럼 영화나 음악에 그치지 않고 여행, 패션, 식음료, 유통 등 전 산업분야로 확산될 여지가 충분하다는 얘기다.

히스토리에 대한 소비, 즉 복고풍은 어제와 오늘을 연결하는 문화적 행위이므로, 한 순간 머물고 가는 단속적인 콘텐츠가 아닌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문화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 또 복고추종자들은 다양한 네트워크를 동원하여 새롭게 혹은 자신만의 재해석으로 스토리텔링하려는 의도가 강하다. 남이 열광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흥에 겨워 하며, 남이 두르고 다니는 패션 액세서리가 나에게 패션 아이템으로 탈바꿈되고, 또 다시 나를 누군가가 따라하게 되는 것이다.

## 문화 복제자 밈(meme)이란?

1859년 찰스 다윈(Charles R. Darwin)은 유사 이래 가장 위대한 저술이라고 칭할 만한 [자연선택에 의한 종의 기원]을 발표했다. 다윈은 이 책을

통해 자연선택에 의한 진화를 가장 단순하게 설명하고 있다. 만약 살아있는 생물들에게 ‘변이’가 나타나 궁극적으로 그 생물들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면, 필연적으로 생존을 위해 싸우는 지경에 이를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변이를 가진 생물개체는 그렇지 않은 개체에 비해 생존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자신과 같은 특질을 지닌 후손을 남길 것이며, 이것이 바로 ‘자연선택 원리’라고 다윈은 정의했다.



한 세기가 더 지난 후인 1976년 옥스퍼드 대학교의 동물학자인 리처드 도킨스(Richard Dawkins)는 [이기적 유전자]에서 다윈의 자연선택을 다음과 같이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다. ‘서로 완벽하게 같지 않은 개체물을 만드는 변이로서의 복제자가 있고, 이들 복제물들 중 일부만이 선택되어 후대에 생존할 수 있다면, 진화는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 즉 진화야말로 생물개체나 종의 이익을 위해서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유전자들 간의 경쟁에 의해 추동된다는 얘기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그는 ‘이기적 유전자 이론(selfish-gene theory)’을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언급하는 ‘이기적 유전자’는 유전자가 생존을 위해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행동한다는 의미다. 흔히 말하는 적자생존(survival of the fittest)은 유전자가 아닌 인간 개체가 살아남아

이득을 본다는 의미로, 이기적 유전자 개념과는 차이를 보인다. 즉 유전자가 자신을 품고 보호해주는 운반자로서의 인간 혹은 종의 이득을 위해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유전자가 자기 자신을 다음 세대로 전달하기 위한 복제에만 관심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복제자인 유전자와 인간인 운반자와의 관계에서 진화는 전적으로 ‘유전자 관점’에서 이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도킨스는 개체나 종 간의 경쟁이 아닌 유전자 간의 경쟁을 통해 진화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도킨스는 보편 다윈주의적 관점에서의 진화 개념을 생물학적 영역을 넘어 확장시켰다. 그는 ‘만약 우주 어딘가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그 생명들도 모두 복제하는 개체들의 차별적인 생존에 의해 진화했을 것이다’라고 말한다.

도킨스는 또 다른 복제자로 모방의 단위 혹은 문화 전달의 단위인 ‘밈(meme)’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하였다. 밈(meme)은 그리스어 미메메(mimeme)라는 단어에서 유전자를 뜻하는 진(gene)과 발음이 비슷한 단음절로 만든 단어다. 그는 문화 복제자인 밈의 사례로 노랫가락, 캐치프레이즈, 복식의 유행, 향아리를 만드는 방법, 아치를 건설하는 방법 등을 꼽았다. 유전자를 통한 생물학적 복제와 더불어 다분히 문화적인 행동 양식이나 지식은 밈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복제되어 전달된다고 이해할 수 있다. 내게로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무언가가 전달되고, 그 ‘무언가’는 또 다른 사람에게로 ‘계속’ 전달되면서 자기만의 생명력을 지닐 수 있다는 얘기다. 대표적으로 식습관의 유행, 관혼상제의 예식이나 관습, 새로

운 기술이 그 ‘무언가’에 해당되며, 밈의 단위를 형성한다.

밈은 전달되기 위해 우리들의 뇌에 일차적으로 저장된다. 주로 ‘모방’에 의해 전달되지만 대체로 유전자에 대한 영향과는 무관하다. 여기서 말하는 모방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뇌에서 뇌로 건너뛰는 현상이다. 이 모방은 어떤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사진처럼 복사하는 좁은 의미의 모방보다는 넓은 의미의 모방을 칭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친구로부터 연예인 K양의 스캔들을 듣고 난 후, 내가 또 다른 친구에게 얘기할 때 그 스캔들과 관련된 정보를 정확히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전달하기보다는 나름대로 각색을 통해 전달됨으로써 친구의 뇌 속에 복사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서도 밈은 우리에게 유용한 것(기술적 혁신)이든, 해로운 것(신종 피라미드식 판매)든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번진다는 특징이 있다. 이기적 유전자처럼 문화 복제 단위인 밈의 입장에서 이기적인 행동을 하기 때문이다.

(다음 호에 계속)

-범상규(건국대 교수)





서은희(자카르타 거주)

**인** 도네시아 헤리티지 소사이어티(이하 헤리티지) 단체를 알고부터 늘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시간이 안되는 날에 탐방을 가서 늘 아쉽던 도중, 이번 탐방은 일요일에 간다는 공지를 보고 바로 신청을 했다. 그러나 신청 후 날씨가 갑자기 점점 더워지더니, 급기야 가기 전날은 숨이 막힐 정도로 더워져 여러가지 고민이 되었다. 반드시 더워 때문만이 아니라도, 서너 시간 가량을 차로 이동하고 하차하여 한시간 반의 산행을 해야 한다는 사실과 지역 특성에 대해 미리 안내를 받고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운이 좋게도 나는 가기 전날 어느 슈퍼마켓에서 이수진 회장님을 만나 바두이 마을의 방문에 대한 그녀의 경험담을 듣고 감동해, 나는 내 모든 고민들을 내려놓고 바두이 마을로 가겠다고 결심하였다. 자카르타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문명의 혜택을 받지 않고 살며 전기도 사용하지 않는 바두이 부족에 대해 듣고는 그들의 삶이 궁금해 견딜 수가 없어진 것이다.

우리 일행은 가이드, 그리고 한국으로부터 딸내 집에 방문차 오신 60세 부부로 이뤄져 있었고, 가는 내내 하하 호호 웃음이 끊이지 않는 참 유쾌한 분들이었다. 하늘이 도운 것인지 날씨 또한 오전에 시원하게 퍼부어 준 세찬 비 덕분에 그다지 덥지 않았다.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풍경 중 하나는, 고속도로로부터 벗어나 녹음이 무성한 산 속으로 들어섰을 때 부터였다. 어느 순간부터 내 주변은 고무나무와 다닥 다닥 붙은 파파야 나무 등이 햇빛을 받아 나뭇잎을 싱그럽게 빛내며 우거져 있었다. 아름다운 자연풍경 말고도 인상적이었던 것은 모래라곤 조금도 나올 리가 없는 산임에도 불구하고 모래가 많았고, 사람들이 모래산에서 모래를 채취하고 있었던 불가사의하고 기묘한 모습이었다. 우리 중 누군가의 설명에 의하면 이 기이한 지형은 옛적에 바다였던 땅의 흔적일 수도 있다고 한다. 맑은 날씨에 한가롭게 유유히 흐르는 흰구름 아래 울창하고 맑은 숲속에서 있자니 몸도 마음도 치유되는 느낌이였다.

Ciboleger에 있는 바두이족 마을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마을들은 산 뿐만 아니라 큰 강줄기를 끼고 군데 군데 군락을 형성하고 있었다. 청정 지역임을 알 수 있는 이끼가 우리의 발길이 닿는 어느곳에나 무성히 나 있었고, 우리 일행은 가는 길목마다 아름다운 경치를 담기 위해 걸음을 멈추고 사진 찍기에 바빴다. 시원하게 흐르는 넓은 강 주변에 굵은 대나무가 자라고 있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다.

같이 온 방문객은 큰 카메라를 들고와 사진을 찍느라 여념이 없었고, “넘 신기해라 ~ 어쩔 이리 분위기가 나니~” 라는 말을 연신 반복하며 즐거워하였다.

바두이 족에게 미리 선물로 준비해간 감비르(gambir)와 커피를 주었다. 새 족장인 Jaro에게 마을을 방문하면서, 신고부터 하고 인원도 기록을 하고 시작했다. 신고를 해야만 마을에 진입할 수 있었다. 그날 헤리티지 바두이족 산마을 탐방에 참가한 36명의 탐방객들이 앞서거나 뒤서거나 여유롭게 산길을 따라 깊이 들어갔다. 마을에 들어서보니, 바두이 족의 어머니



라 할 수 있을 자연과 땅을 보호하고 조상들의 정신적 유산을 지켜가는 그들의 삶을 그대로 느낄 수가 있었다.

바두이 족 사람들은 두가지로 나뉘는데, 순결과 거룩함을 의미한 흰색 옷을 입는 내바두이 사람들과 이들을 보호하는 외바두이 사람들이 있다. 철저하게 그들의 관습을 그대로 따르는 내바두이 족의 땅을 둘러싸 생활하는 외바두이 족은 많은 고대 금기들을 완화하여 돈을 사용하고 방문객을 받아들이고 있으나, 조상들의 종교의식을 기반으로 한 원칙은 모든 면에서 남아있고 지킨 채 살아가고 있다.

이런 금기사항 중에는 물의 흐름이나 땅의 형성의 변화를 막는 것과 분노를 표출하지 않는 것, 싸움, 네 다리 동물의 사육, 도둑질, 간음, 현대적인 장비 또는 교통수단의 사용 등이 있다. 공동의 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의 처벌 역시 엄중하다. 안경 혹은 석유 램프 등의 금지된 물품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이 물품들을 압수, 그리고 사용자의 눈 앞에서 파손하였고, 간통이나 절도 혹은 유혈사태 같은 더욱 심각한 범죄가 발생할 시에는, 범죄자



는 공동체로부터 외부지역에 있는 특별가옥으로 40일간 추방당해 유배 생활을 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은 자연 말고도 그 일부인 사람 역시 존중하고 이해하기 때문에, 추방당한 이들은 그곳에서 삭막한 생활을 하지 않고 지혜로운 원로와 함께 생활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죄를 씻도록 인도한다고 한다. 수세기동안 바두이족이 평화와 화합 속에서 살 수 있게 한 것은 이러한 그들의 법이 있었기에 가능했던것 같다.

바두이 달력은 최초의 선조부터 물려 내려오는 음력을 사용하며, 벼농사를 지을 때에 밭을 준비해 벼를 키우는 동안에는 쌀의 여신이 땅과 결혼한다 믿어 이를 기리기 위해서 벼를 심을 때에는 대나무 악기 앙끌롱을 연주한다.

바두이 족은 주변을 뽁뽁히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종의 대나무를 이용해 집도 짓고 다리도 만드는 등, 자연과 지혜로운 공생 관계를 맺은 채 살아가고 있으며, 어쩌면 불편할 수도 있는 크고 작은 돌들 또한 입구에서 부터 마을에 이르기까지의 멋스러운 길들과 계단들로 바꾸어 놓았다. 우기철이 되면 돌계단들로 인해 걷기가 편할 거 같았다.

대나무로 만들어진 목재가옥은 비가 자주오는 인도네시아의 기후조건에 얼마나 맞을지 모르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제법 튼튼해 보였고, 그러한 목재 가옥들 때문에 마을이 더욱 운치가 나보였다.

운치가 있고 시원해 보이는 집을 지을 때에도 톱이나 못을 사용하지 않았고, 지붕은 롬비아라고 하는 야자잎을 이용하였으며, 대나무를 짜고 벽과 바닥을 구축하였다. 이들은 가구를 사용하지 않아 ‘판단’ 잎 매트를 대신 바닥에 놓아 폭신하게 만든 다음 잠을 잔다고 한다.

1시간 반 정도 걸어가서 마을로 들어서서 많은 아이들과 만날 수 있었는데, 해맑고 이쁜 얼굴을 한 삐쩍마른 아이들이 옹기종기 앉고 서서 놀이를 하고 있었다. 우리는 사탕을 가져가서 만나는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반갑게 인사를 했다.

집집마다 앞마루에 베를 대고 부지런히 베를 짜고 있는 아낙네를 쉽게 만날 수 있었다. 그들은 자기들이 손수 짠 천을 마루위 처마에 걸어놓고 팔기도 했다. 주로 짠 것은 군청색천이 많았는데 바두이족의 상징은 군청색인 것 같았다. 5명의 집꾼들이 동행을 하며 길안내를 해주었는데, 모두들 한결같이 짙은 군청색의 짧은 사롱(Sarong)에 흰웃도리를 입었다. 바두이족은 어디서 봐도 눈에 띄는데, 바로 같은 색의 옷을 입어서 그런 것 같았다.

과학과 기술이 발전한 요즘, 인간은 더이상 전자기기와 가구 등이 없는 세상에서는 살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준 이들의 모습은 강하고 인상적인 기억으로 오래 남을 것이다.





## 국내거래에 Rupiah 사용의무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centrin.net.id](mailto:yisngmin@centrin.net.id)  
YSM & PARTNERS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ank Indonesia)은 자국 영토 내에서 주권행사와 Rupiah 가치 안정을 위해 모든 국내거래에 대하여 Rupiah 사용을 의무화한 중앙은행 규정을 공포했다. 시공 기간이 장기인 건설업계, 수출품 제조 하청이 많은 봉제업계, 신발업계, 전자업계, 관광업계, 해운업계, 수송업계, 부동산업계, 수입 의존도가 높은 사업, 원가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 외화 포션이 많은 사업, 외화 차입이 많은 사업자 등은 중앙은행의 국내 거래에 대한 Rupiah 사용 의무 법제화로 인하여 적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Rupiah로 거래를 하지 않거나 Rupiah로 수령을 거부하는 자는 실행 및 벌금에 처한다고 엄하게 규정하고 있어서, 시행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내거래에 대하여 Rupiah 사용 의무는 화폐에 관한 2011년 법률 제 7호에 이미 의무화시켰으나 비즈니스계에서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고 종전 그대로 외화, 주로 US\$로 계속 거래를 해오다가 법대로의 통치철학을 가

진 대통령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그 동안 외화로 해오던 국내거래를 Rupiah로 변경해가고 있다. 국내거래에 대한 Rupiah 사용 의무를 설명한다.

### 1. Rupiah 사용 의무 대상 및 범위

- 1.1. 내국인, 외국인, 회사, 단체 등 거래자의 신분 상관없이 인도네시아 영토 내에서 거래를 하는 모든 자.
- 1.2. 지불이 수반되는 모든 거래.
- 1.3. 현금 혹은 신용카드, 현금 출납기 카드, 수표, 빌렛 지로, 신용장, E-money 등 비현금 지불 도구로 지불하는 모든 거래.

### 2. Rupiah 사용 의무가 없는 거래

- 2.1. 국가 예산 중 특정한 예산 집행.
  - 2.1.1. 국가 해외채무 상환.



- 2.1.2. 국가 국내채무 외화 상환.
- 2.1.3. 물품 수입.
- 2.1.4. 자본재 수입.
- 2.1.5. 외화 표기 국채 대금 수령.
- 2.1.6. 기타 법정 특정 지출.
- 2.2. 해외로부터 무상원조 혹은 해외로 가는 무상원조.
- 2.3. 직접 재화수출, 직접 용역직접 수입, 국제용역, 해외소비 등 국제 상거래.
- \* 그러나 국내 CMT, 하청 등 수출입 관련 국내거래는 Rupiah 사용의무가 있다.
- 2.4. 은행의 외환 계좌에 있는 돈.
- 2.5. 국제 금융 거래.
- 2.6. 외환취급 은행의 외환 거래.
- 2.7. 관련 법규에 따라 정부에서 발행하는 유가증권
- 2.8. 법규에 근거하여 외환으로 하는 거래.

### 3. Rupiah로 수령 거부 금지 의무

상기 “1항” 에 열거한 사항으로 인하여 Rupiah로 지불 시 내국인, 외국인, 회사, 단체 등 거래자의 신분 여하를 불문하고 반드시 Rupiah로 수령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러나 수령할 Rupiah가 위조지폐로 의심이 가거나 외국화폐로 지불하기로 사전에 계약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4. 국내거래에 Rupiah만 표기 의무

모든 국내거래는 계약서, 인보이스 혹은 주문서에 가격을 외화로 표기를 금하며 반드시 Rupiah로 표기해야 한다. 외화 및 Rupiah 병기도 금하며 Rupiah 하나로만 표기해야 한다.

### 5. 감독부서

5.1. 국내거래에 Rupiah 사용의무 감독 임무는 중앙은행(Bank Indonesia)에 있으며, 중앙은행은 국내거래에 Rupiah 사용 의무가 있는 모든 사업자에게 국내거래에 Rupiah 사용 관련 보고, 설명 및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5.2. 중앙은행으로부터 상술한 요구를 받은 사업자는 중앙은행에 국내거래에 Rupiah 사용 관련 보고, 설명 및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6. 사업의 특징 상 비현금 지불조건을 Rupiah로 지불이 어려운 사업자에 예외 적용 가능.

사업의 특징 상 비현금 지불조건을 Rupiah로 지불이 어려운 사업자에게는 중앙은행이 검토 후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

### 7. 형사처벌 및 행정처벌

7.1. 국내거래 현금 지불수단에 Rupiah를 사용하지 않거나 Rupiah로 대금 수령을 거부하는 자는 징역 최장 1(일)년 및 벌금 최고 Rp.2억에 처한다.

7.2. 국내거래 비현금 지불수단에 Rupiah 사용 의무를 어기는 경우에는 벌금 최고 Rp.10억의 한도 내에서 거래액의 1(일)%의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

### 8. 경과 규정

8.1. 2015. 7. 1. 이전에 체결된 계약으로 i). 국가예산 집행에 있어서 특정 거래. ii). 해외로부터 받는 무상 기증 혹은 해외로 하는 무상 기증. iii). 국제무역거래. iv). 은행에 있는 외환예금. v). 국제 자금융자거래. vi). 관계법규에 근거한 환전업 업무. vii). 관계법규에 근거한 외환국채. viii). 기타 법규에 근거한 외환 거래는 계약서 유효일까지 Rupiah 사용 의무가 없다.

8.2. 상술한 서면 계약서는 외환 비현금 결제수단에 관한 계약서에 한한다.

8.3. 상술한 서면계약서의 연장 혹은 개정은 반드시 국내거래에 Rupiah 사용의무에 관한 중앙은행규정 제 17/3/PBI/2015호에 근거해야 한다.

### 9. 국내거래에 Rupiah 사용의무 발효일

9.1. 일반 거래 : 2105년 3월 31일

9.2. 비현금 거래 : 2015년 7월 1일

# 한인회 무료 법률 상담 안내

## 1. 상담자 :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 파산관리사

HP : 0816 1911 245

Tel : (021) 5296 0643

E-Mail : yisngmin@centrin.net.id

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3~4시

장소 : 코리아센터 202호

KOREA CENTER BUILDING LT.2

Jl. Jend.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12950

## 2. 상담자 : 이 소 왕 변호사

HP : 0816 846 631

Tel : (021) 520 7153

E-Mail : doowang@cbn.net.id

시간 : 매주 수요일 오후 3~5시

장소 : ADHI GRAHA (SURVEYOR INDONESIA) 1701호

Jl. Jend. Gatot Subroto Kav 56, Jakarta 12950

## 3. 상담자 : 김 민 수 변호사

HP : 0816 794 257

Tel : (021) 797 6254

E-Mail : ms@paklawfirm.com

시간 : 매주 금요일 오후 3~4시

장소 : 코린도 사무실 5층

WISMA KORINDO LT. 5

Jl. MT. Haryono Kav 62 Jakarta

### <상담 에티켓>

상담업무의 효율 증진을 위하여 법률상담을 희망하시는 분은  
해당변호사에게 사전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동그라미 이야기

시 : 한경순    그림:이태복

사각형 안에 세모를 집어넣고  
 동그라미를 그린다  
 공간은 갈라져  
 또 다른  
 작은 방이 생겼다

백발강, 노랑, 파랑  
 방마다 빛깔 다른  
 작은 서랍을 쌓았다

사각의 뜰에서 생겨난  
 동그라미 방  
 하나, 둘, 셋...

여유를 모르던  
 직각의 마음방에서  
 곡선의 꽃들이  
 천천히 피기 시작한다



한경순 약력  
 인천 출생  
 한-인니 문화 연구원  
 인터넷 공모전 제4회 특별상 수상  
 현 한국 문인협회 인도네시아 지부 회원

# 드라마에서 배우는 BAHASA

허영순/OKTN (KBS WORLD)

6월은 한국의 산들바람과 해변가의 피서객들이 생각납니다. 근래들어 해외진출 특히 인도네시아에 진출 및 취업하는 젊은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 부모님의 보호에서 벗어나 해외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뭔가에 주눅들지 않고 담이 크다 간이 크다 는 겁이 없고 매우 대담함, 벼짱이 두둑함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요즘 벼짱 두둑한 청년들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영 일일드라마 ‘당신만이 내사랑’

완벽한 줄로만 알았던 가정사에 문제가 발생하고 모두가 자신을 등진다고 생각하지 무서울게 없는 헤리는 말수(친모)의 인감도장까지 훔쳐서 매매 계약을하고 동성시장 매입을 밀어붙입니다.

친자는 소를 제기하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안아무인으로 행동하는 헤리의 행동을 보고 주란은 말합니다.

**Wow, nyalinya besar.**

어머 간도 커라.

재미있겠도 인도네시아어에도 이와같은 말을 사용하고 있네요

담이크다, 간이크다, 대담하다, 용감하다, 용맹하다 라는 문장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는 유의어입니다.

## 1. Nyalí besar

Nyali 는 사전적 의미로 담, 쓸개 (Empedu), 감정(Perasaan) 또는 겁이 없는, 용감한 (Keberanian) 이지만 속어로 Nyali (명사) 뒤에 besar (형용사)가 붙어 용감한 이라는 뜻으로 표현되며 다음과 같이 속어로 사용되고 Hatinya besar (마음씀씀이가 큰, 배포가 큰) 과 유의하게 사용된다. [memiliki keberanian (nyali) yang besar]

Contoh: 1) Seseorang harus bernyalí besar jika ingin melakukan kegiatan yang memacu adrenalin seperti terjun payung, paralayang dll. 페러글라이딩, 고공낙하 와 같이 아드레날린 분비가 필요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포가 커야 한다 (큰 용기가 필요하다)

2) Pencuri itu bernyalí besar karena berani mencuri di wilayah Kapolda. 간도 크게(겁도 없이) 도둑은 경찰청 인근지역을 털었다.

2. **Pantang menyerah** 각각의 단어의 뜻을 찾으면 Pantang(굳기, 피해야하는) 과 Menyerah (Serah, 어근) 넘기다, 양도하다, 양보하다 라는 단어 이지만 Pantang menyerah 라는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목적인바를 위해 희생하면서 까지 주저함 없이 의욕에 넘쳐, 낙심함 없이 행동하는 것, 강한, 굳센, 강인함( Tangguh ) 을 나타내는 속어로 사용된다. [suatu sikap dan perilaku seseorang dalam melakukan sesuatu dengan penuh semangat, tanpa putus asa meskipun banyak rintangan yang dihadapi dengan penuh pengorbanan demi mencapai tujuan yang diharapkan, seperti mendapatkan keuntungan]

Contoh: 1) Para ilmuwan berusaha keras untuk mencari obat bagi penderita AIDS. Mereka pantang menyerah melakukan berbagai eksperimen hingga didapatkan obat yang mujarab. 학자들은 에이즈 치료약을 찾기 위해 무단히 노력하였고, 강한 마음으로 (굳은 의지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 치료약을 얻었다.

2) Para pengusaha yang pantang menyerah dalam menjalankan usaha mereka biasanya selalu sukses. 배포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기업을 운영하는 사업가들은 보통 성공한다.

이 외에도 큰 마음 용기를 갖다라는 뜻을 같은 단어는 Berani, Wibawa, Gagah, Jantan(남성다움)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다.

1. Berani는 어려운 상황이나 무서움에 대한 겁이없는,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넘치는, 용감함을 나타낸다. [mempunyai hati yang mantap dan rasa percaya diri yang besar dalam menghadapi bahaya, kesulitan, dsb; tidak takut (gentar, kecut)]

Contoh: 1) Anak harus diajarkan berani sejak dini agar tidak menjadi pengecut. 비겁한 사람이 되지 않게 일찍부터 용감함(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가르쳐야 한다.

2) Wibawa 는 언행이 타인의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 그러한 용감함과 담대함을 갖음을 나타낼 때 사용된다. (지도자, 권력자) [1. pembawaan untuk dapat menguasai dan mempengaruhi dihormati orang lain melalui sikap dan tingkah laku yg mengandung kepemimpinan dan penuh daya tarik; 2. Kekuasaan]

Contoh) Seorang pemimpin harus memiliki wibawa agar disegani oleh pengikutnya. 리더는 참여자들이 망설이지 않도록(흔들리지 않도록) 위엄을 갖어야 한다.

3. **Gagah** 힘이 센, 건장한, 당당해 보이고 용감해 보이는 이라는 뜻을 갖는다. [1. kuat; bertenaga 2 besar dan tegap serta kuat (tt badan); 3 tampak mulia; megah]

Contoh: Kakek masih terlihat gagah meski sudah berusia lanjut. 형은 연로 하였으나 아직 건장해 보인다. (당당하고, 위풍 있어 보인다.)

4. **Jantan** 수컷이라는 으로 동물의 성별을 나타낼 때 사용되나 남성다움(진정한 남성) 마초 기질이있음을 표현할 때 용감한 사람을 표현할 때 사용한다. [ 1 yg berjenis kelamin laki-laki (hanya untuk binatang dan tumbuhan-tumbuhan spt dibeberapa daerah dipakai juga untuk manusia); 2 gagah dan berani

Contoh: 1) Seorang pria yang merasa jantan tidak akan pernah melukai perasaan seorang wanita. 진정한 남성은(진정 남자다운 남성은) 여자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다.

2) Seorang pemimpin yang jantan akan terlihat penuh wibawa karena memiliki nyali besar untuk mengakui kesalahannya serta pantang menyerah dalam menegakkan keadilan.

진정한 남성 리더는 진실을 위해 굽히지 않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대담함을 가지고 있어 위엄이 넘친다.

# 화제의 도서를 소개합니다!!



## 엄마의 말공부

이임숙 저 | 카시오페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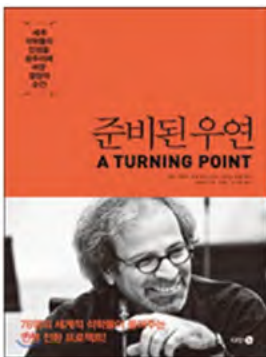
이 책은 아이의 나이나 성향에 상관없이 모든 아이에게 통하는, 모든 아이가 행동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말을 알려준다. 많지도 않고 길지도 않다. 5가지 엄마의 말이면 된다. 그 5가지 전문용어로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 때까지 하루의 일과에 적용할 수 있도록 생생한 사례와 구체적인 지침으로 친절하게 알려준다. 이제 ‘엄마의 말 공부’ 를 시작해보자. 전쟁 같은 하루가 행복한 하루로 바뀔 것이다.



## 데빌스 스타 : The Devil's Star

요 네스뵈 저/노진선 역 | 비채

‘해리 홀레 시리즈’ 중 오슬로의 첫눈이나 한겨울이 아닌 ‘여름’ 으로 시작되는 유일한 소설이자, 《레드브레스트》 《네메시스》를 잇는 오슬로 삼부작 완결편이며 영국 판권 수출 시 첫 작품으로 소개되어 요 네스뵈 광풍의 견인차 역할을 한 《데빌스 스타》 한국어판이 드디어 출간된다. 긴 겨울의 기억조차 잊게 하는 한여름의 오슬로. 한낮의 열기 속에서 첫 살인사건이 발생한다. ‘어떻게’ 가 아니라 ‘왜’ 가 중요한 사건. 해리는 직감적으로 긴장하는데... 전편에 이어 해결되지 않는 미스터리들로 괴로워하는 해리는 그러나 이번에도 볼레르와 파트너가 되어 이 희대의 연쇄살인을 해결해야 한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해리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는다. 핀란드 스릴러 작가협회 선정 최우수 외국소설상 수상작.



## 준비된 우연

필립 코틀러, 마셜 골드스미스, 크리스 벵글 등저/허병민 기획, 편/오수원 역 | 다산3.0

누구나 크건 작건 자기만의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석학?리더들의 인생을 바꾼 터닝 포인트에는 몇 가지 중요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기회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똑같은 경험도 본인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것을 토대로 어떠한 행동을 취하는지에 따라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저 평범한 일상처럼 아무렇지 않은 일이 될 수도 있겠지요. 둘째,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잡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행동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화두를 참고하셔서 제가 선정한 78명의 석학?리더들, 그들의 인생을 바꾼 『준비된 우연』의 순간들을 만나보셨으면 합니다.

## 사랑의 완성

로베르트 무질 저/최성욱 역 | 북인더잡

제임스 조이스, 마르셀 프루스트와 함께 모더니즘의 3대 거장이라 불리는 오스트리아 작가 로베르트 무질의 소설집. 지난 세기 가장 중요한 독일어권 작가 중 하나로 꼽히는 무질이 남긴 중단편 중 대표작인 「지빠귀」 『세 여인』 「사랑의 완성」 『생전의 유고』 등을 수록했다. 특히 「사랑의 완성」과 『생전의 유고』는 국내에서 초역되는 작품이며 무질의 대표 중단편을 한곳에 모아 출간한 것 역시 이번이 처음이다. 파격적인 소재, 사유에 바탕을 둔 서사구조, 도발적인 주제의식으로 부르주아의 상식에 맞서는 도덕적 실험을 시도하고 있다. 전쟁과 야만으로 치달은 20세기 초 유럽의 영혼이 도달한 막다른 골목을 실험적으로 형상화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 앞으로 10년, 한국 없는 중국은 있어도 중국 없는 한국은 없다

김상철 저 | 한스미디어

저자는 30년 이상의 세월을 KOTRA에서 근무하며 세계 각국의 경제사를 온몸으로 경험했다. 특히 최근 5년간 베이징과 상하이에서 무역관장으로 재직하며 급변하는 중국의 모습을 생생하게 목격한 것이 이번 책을 출간한 직접적이 계기가 되었다. 잘못 알고 있는 혹은 왜곡되어 있는 중국의 현실을 한국 기업과 비즈니스맨은 물론 일반 대중에게 제대로 전하기 위함이었다. 이로 인해 한국에게 있어 중국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이고, 어떻게 하면 상생의 길을 도모할 수 있을지 그 해답을 제시하였다.



## 잊혀질 권리, 나를 잊어주세요

송명빈 저 | 베프북스

이무심코 누른 ‘좋아요’, 무심코 올린 사진 한 장, 무심코 가입한 홈페이지... 이 모든 것들이 디지털 낙인이 되어 당신의 삶을 옥아맨다면? 디지털 망망대해 속에 당신의 개인 정보가 이리저리 떠다니며 누군가의 범죄 수단이 되고 있다면? 이 책에서는 일상에서 개인정보 유출의 피해를 줄이는 예방법 및 디지털 흔적을 지우는 방법부터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우리가 미처 몰라서 이용하지 못했던 인터넷 사이트 등 다양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한다. 뿐만 아니라, 잊혀질 권리의 개념과 이를 둘러싼 여러 논쟁, 더 나아가 디지털 소멸이라는 한 차원 더 높은 개념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도서 관련 문의 : YES24인도네시아 이준호  
021-2902-1714(직통105) / 0815-830-3543 /  
help@yes24.co.id / www.yes24.co.id

## [2015년 개인외비 및 불우이웃돕기 성금납부명단]

| 번호   | 성명                   | 납입연도 | 금액 (IDR)     |
|------|----------------------|------|--------------|
| 1    | 승은호                  | 2015 | 300,000      |
| 2    | 신기엽                  | 2015 | 300,000      |
| 3    | 조규철                  | 2015 | 300,000      |
| 4    | 김재민                  | 2015 | 300,000      |
| 5    | 김대근                  | 2015 | 1,300,000    |
| 6    | 조영재                  | 2015 | 1,300,000    |
| 7    | 김양임                  | 2015 | 300,000      |
| 8    | 안창섭                  | 2015 | 300,000      |
| 9    | HORISON FORBIS HOTEL | 2015 | 3,000,000    |
| 10   | 김영률                  | 2015 | 1,300,000    |
| 11   | 오세명                  | 2015 | 300,000      |
| 12   | 김창근                  | 2015 | 1,300,000    |
| 13   | 최양기                  | 2015 | 300,000      |
| 14   | 홍석영                  | 2015 | 300,000      |
| 15   | 강재덕                  | 2015 | 300,000      |
| 16   | 승진아                  | 2015 | 300,000      |
| 17   | 오세윤                  | 2015 | 300,000      |
| 18   | 강희중                  | 2015 | 300,000      |
| 19   | 최석일                  | 2015 | 300,000      |
| 20   | 김평수                  | 2015 | 10,000,000   |
| 총 금액 |                      |      | Rp22,400,000 |

### [안인외 외비 납부 안내]

## “내가 자발적으로 내는 외비는 따뜻한 이웃사랑입니다”

한인회 회칙에 명시된 정회원 연회비는 개인회비와 법인회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회비는 상공회의소의 법인회비(회원제)가 있는 관계로 법인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의미에서 2013년 8월부터는 한인회에서 받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기 납부하신 법인회비는 본 취지에 부응하기 위해 불우이웃돕기에 전액 사용하겠습니다.

### 개인회비는 가구당 매년 Rp. 30만 로

책정이 되어 있으며 납부되는 정회원 회비는 한인회의 모토인 나눔으로

축복받고 더불어 함께 사는 아름다운 한인사회를 위해

불우이웃(한인, 인도네시아인)을 돕는데 전액 쓰여질 것 입니다.

매월 적립되는 금액과 사용내역은 한인뉴스와 한인회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밝힐 것입니다.

한인회원 모두의 의무인 회비납부를 통해 사랑의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재원마련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보내실 곳>

재 인도네시아 한인회장 신기엽 배상

|      |                              |   |
|------|------------------------------|---|
|      | 우리는행<br>BANK WOORI INDONESIA | KEB HANA INDONESIA                            |
| 계좌번호 | RP A/C NO:<br>100-913-000538 | RP A/C NO:<br>220 2005949<br>001 00 11 002049 |
| 예금주  | ASOSIASI KOREA               | YAYASAN ASOSIASI KOREA                        |





**“Think the Unthinkable”**  
 다른 생각, 다른 행동, 다른 결과

**PT. INNOMATE** Think the Unthinkable!  
 14F, SME-Tower, JL. Jend. Gatot Subroto Kav 94, South Jakarta, 12780  
 +62. 21. 7919. 2006(Rep.) 070. 4644. 2280(Dir.) +62. 21. 7919. 2062  
**Design Division** 4F Dongsung Bldg, 7-27, Chungdam-dong, Gangnam-gu, Seoul, 135-949, Korea

**THE PROFESSIONAL INTERIOR COMPANY**  
**인테리어 전문회사 이노메이트**

All the designs are completed by specialists!  
 이노메이트는 최고의 전문성으로 공간의 가치를 극대화하며, 고객의 감동으로 이어지는 최고의 공간을 디자인합니다.  
 Office Design / Hospitality Design / Retail Space Design  
 Residential Design / Cultural Space & Exhibition Design  
 Transportation Space / Medical Space  
 Educational training facility / Overseas Projects

● **주요기관**

|              |                      |
|--------------|----------------------|
| 한국대사관        | 2967 2555            |
| 영사과          | 2967 2580            |
|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 574 1522             |
| 한국국제협력단      | 29921900, 29922100-1 |
| 코리아센터빌딩      | 525 6525             |
| 한국산업인력공단     | 527 2612             |
| 자카르타한국문화원    | 2903 5650            |
| 한국관광공사자카르타지사 | 5785-3030            |
| 한인니문화연구원     | 0816 1909 976        |
| 중소기업진흥공단     | 5292 1302            |

● **한인단체**

|                    |                |
|--------------------|----------------|
| 재인도네시아한인회          | 521 2515       |
| 땅그랑한인회             | 5532 5555      |
| 반동한인회              | 022 2021566    |
| 발리한인회              | 0361 723 070   |
| 동부자바한인회            | 031 568 8690~1 |
| 수까부미한인회            | 0266 736 441   |
| 중부자바한인회            | 0298 522 587   |
| 메단한인회              | 0811 608 724   |
| 족자한인회              | 0274 376 741   |
| 바탐한인회              | 0778 392 01    |
| 보고르한인회             | 0251 7782 2959 |
| 찌까랑한인회             | 8990 9917      |
| 한국국제부인회            | 0817 110 234   |
|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 081511708882   |
| 국악사랑단체             | 0811 90 2003   |
| 즈빠라한인회             | 0291 598593    |
| (총무 조영성)           | 0813 90323355) |

● **한인잡지**

|      |                |
|------|----------------|
| 한인뉴스 | 521 2515       |
| 교민세계 | 739 9025       |
| 벼룩시장 | 0815 1071 0023 |
| 한울   | 452 5655       |
| 여명   | 9955 5859      |

● **교육기관**

|                       |             |
|-----------------------|-------------|
| 한국국제학교 (JKS)          | 844 4958-61 |
| 간디국제학교                | 690 9902    |
| 뉴질랜드국제학교 (NZIS)       | 7884 1226   |
| 싱가폴국제학교 (SIS)         | 7591 4414   |
| (골라빠가딩)               | 460 8888    |
| 영국국제학교 (BIS)          | 745 1670    |
| 자카르타국제학교 (JIS)        | 750 3640    |
| 북국제학교 (NJIS)          | 453 1001    |
| 호주국제학교 (AIS)          | 782 1141    |
| 일본학교 (JJS)            | 745 4130    |
| 네덜란드국제학교(NIS)         | 782 3929    |
| 독일국제학교(DIS)           | 537 8080    |
| TAIPEI 국제학교(JITS)     | 452 3273    |
| SPH (땅그랑)             | 546 0234    |
| (찌까랑)                 | 897 2786    |
| RICS                  | 7590 3342   |
| 헤리티지인터네셔널(HIS)        | 08129712306 |
| LYCEE Int. FRANCAIS   | 750 3062    |
| JIPS                  | 3004 2885   |
| JIMS                  | 744 4860    |
| PAKISTANEMBASSYSCHOOL | 3904137     |
| ACG 국제학교              | 780 5636    |
| ICSCE                 | 780 7313    |

● **유치원**

|               |           |
|---------------|-----------|
| KIDS Island   | 765 6588  |
| Bambino (위자야) | 720 3356  |
| (빠뜨라 꾸닝안)     | 8378 3783 |
| 사랑            | 835 1540  |
| 성모            | 7884 2467 |
| 하나            | 844 5283  |
| 리틀램스쿨(자카르타)   | 750 0739  |
| (골라빠가딩)       | 471 8047  |
| (땅그랑)         | 558 7227  |

**마타아리 여행사**  
 소장 정연승  
 T. 521 2212 H. 081 888 5353  
 E. yunisarah@naver.com

**terior**  
 Creative Human Space  
 사무공간  
 주거공간  
 상업공간  
 Darmawangsa Square Citywalk 3rd Floor Unit 62-63  
 Jl. Darmawangsa VI & XI, Jakarta Selatan 12160  
 Tel : 021-7278-0704 Fax : 021-7278-8330

**가나** **한식양**  
**KANA 가나 RESTOLOUNGE**

**EVENT 대환영**

- 돌잔치, 회식, 신년회, 송년회
- 도시락 쿵서비스, 캐터링

**토요일/일요일 20%특별할인**

Landmark Bld. Ground Floor  
 Jl. Jend. Sudirman Kav. 1 Jakarta  
 Phone : 2520077, 5710909  
 HP : 0811 918 132

**강남렌트카**



0811-9409-632  
 0812-1097-631

**佳肴** 최상의 재료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그 이름에 남아 모시겠습니다

**佳肴 Gahyo**

(021)9127-2262  
 SCBD Jl. Jend. Sudirman Kav. 52-53 Lot. 6 Jkt  
 (021)4587-6626  
 Sport Mall Kelapa Gading Blok A 26-27 Jkt

●골프장

|                   |               |
|-------------------|---------------|
| BOGOR RAYA        | 0251)827 1888 |
| CENKARENG         | 5591 1111     |
| CILANGKAP         | 8459 5687     |
| CIKAMPEK          | 0264)317 007  |
| DAMAI INDAH [BSD] | 537 0290      |
| EMERALDA          | 875 9019      |
| GADING RAYA       | 546 7668      |
| GUNUNG GEULIS     | 0251)825 7500 |
| HALIM 1           | 800 5762      |
| HALIM 2           | 809 0729      |
| IMPERIAL          | 546 0120      |
| JABABEKA          | 893 6148      |
| JAGORAWI          | 875 3810      |
| KAPUK             | 588 2388      |
| KARAWANG          | 0267)405 888  |
| KEDATON           | 5930 0000     |
| KEMAYORAN         | 654 1156      |
| KRAKATAU          | 0254)372 030  |
| LIDO              | 0251)822 1008 |
| MATOA             | 787 0864      |
| MODERN            | 552 9228      |
| PALM HILL         | 8795 4307     |
| PANGKALAN JATI    | 751 3326      |
| PERMATA SENTUL    | 8795 1787     |
| PONDOK CABE       | 740 5385      |
| PONDOK INDAH      | 769 4906      |
| RAINBOW HILL      | 0251)827 2111 |
| RANCAMAYA         | 0251)824 2282 |
| RAWAMANGUN        | 475 4732      |
| ROVER SIDE        | 867 1533      |
| ROYAL JAKARTA     | 8088 4488     |
| SAWANGAN BARU     | 740 2194      |
| SEDANA            | 0267)644 730  |
| SENTUL HIGHLAND   | 8796 0266     |
| TAKARA            | 599 1227      |

●골프교습

|               |              |
|---------------|--------------|
| Easy Golf     | 801 2048     |
| 골프투어 & 골프아카데미 | 392 178      |
| 골프투어 자카르타     | 7013 8166    |
| 심스골프          | 570 3063     |
| 배준원골프교실       | 781 7679     |
| PGA골프레슨(까라와찌) | 5577 8936    |
| 골프투어&골프아카데미   | 0811 143 437 |

●골프샵

|           |           |
|-----------|-----------|
| 교민프로골프샵   | 5577 1006 |
| 따만사리골프샵   | 546 0838  |
| 레네세계골프    | 739 8312  |
| 한양(골라빠가딩) | 450 4364  |
| EFC Golf  | 725 0057  |
| 혼마플레이골프   | 344 2540  |
| MFS골프     | 725 0057  |

|                     |             |
|---------------------|-------------|
| Play Golf           | 722 9587    |
| 월드                  | 552 7434    |
| Bridgestone Golf    | 7279 8123   |
| Love Green Halim    | 8778 2771~2 |
| Love Green Cikarang | 8990 7881   |

동문회

●중/고교

|              |                |
|--------------|----------------|
| 강경상고(민병무)    | 0818 879 149   |
| 경기고(구본찬)     | 780 0204       |
| 경남공고(이봉규)    | 0812 902 3800  |
| 경남중고(정낙현)    | 0813 8293 8557 |
| 경동고(강성원)     | 0812 8830 8566 |
| 경북고(노경인)     | 0815 1901 0575 |
| 경북고(이병수)     | 0816 181 3615  |
| 경성고(박영권)     | 0813 8805 1296 |
| 경신고(김진태)     | 7883 6372      |
| 경주중고(김홍규)    | 0818 141 635   |
| 구미 전자공고(이원규) | 0815 1428 9329 |
| 계성고(최상록)     | 0811 249 038   |
| 광주고(선홍규)     | 0813 1536 5223 |
| 광주 사려시오중고    | 548 5112       |
| 광주 서중일고(이용하) | 527 0150       |
| 광주 금호고       | 0815 1903 5802 |
| 남성중고(임석균)    | 515 9277       |
| 대구고(김현철)     | 0818 718 535   |
| 대구대륜고(노태진)   | 0816 835 185   |
| 대구 상고(김진우)   | 825 0581       |
| 대구 영남고(오승현)  | 0858 4653 6899 |
| 대광중고(이민규)    | 0816 880 018   |
| 대원외고(권기훈)    | 0877 7779 4668 |
| 대전고(윤내선)     | 426 2954       |
| 덕수상고(정천수)    | 0816 114 7364  |
| 동대문상고(곽기석)   | 867 3837       |
| 동래고(박형남)     | 0815 1906 0877 |
| 동성고(홍창형)     | 0812 102 2670  |
| 동아고(여병철)     | 0811 187 554   |
| 동인고(차명훈)     | 0815 950 0461  |
| 마상고(김만수)     | 0811 122 5239  |
| 목포중고(김용진)    | 568 0517       |
| 배재학당(이성수)    | 0815 1428 0295 |
| 배정고(김상훈)     | 0817 659 9473  |
| 보성고(김유호)     | 5940 1282      |
| 보성교우회(박지배)   | 0811 976 537   |
| 부산기고(채윤규)    | 026 751 2483   |
| 부산 동고(이동훈)   | 0811 190 7967  |
| 부산상고(박갑수)    | 0812 952 5404  |
| 부산 중앙고(송명석)  | 0811 834 412   |
| 부산고(조명국)     | 0811 1046255   |
| 부산 외고(선진세)   | 0813 8536 8434 |
| 서울고(신균)      | 0811 157 450   |
| 서울대신고(서영석)   | 0813 1139 7145 |
| 선린상고(김기석)    | 0817 648 9321  |

|               |                |
|---------------|----------------|
| 성남고(성기채)      | 0815 1070 2424 |
| 성동고(구본욱)      | 025 161 1466   |
| 성원고(강변창)      | 0811 891 458   |
| 수원 유신고(안성욱)   | 0813 1626 7777 |
| 순천 중고(김정욱)    | 0815 1932 9650 |
| 송문고(김영언)      | 0816 937 269   |
| 신일고(금민철)      | 0816 864 677   |
| 심인고(김종필)      | 0815 1305 4150 |
| 안양공고(조한영)     | 0812 859 8483  |
| 양정고(이중환)      | 0815 1033 1001 |
| 여수고(유병관)      | 0818 479 862   |
| 영등포고(정하승)     | 0811 140 334   |
| 오산고(조동혁)      | 0815 7432 7769 |
| 용산고(박승래)      | 0813 1842 1269 |
| 유한공고(이선용)     | 0812 071 210   |
| 인천중/제물포고(한승도) | 0818 912 698   |
| 여수고(유병관)      | 0818 479 862   |
| 영남고(오승현)      | 0858 4653 6899 |
| 전주고(남택열)      | 0811 877 108   |
| 정석항공고(백승엽)    | 0811 903 144   |
| 중동고(최무중)      | 0811 8532 0354 |
| 중앙고(정재익)      | 0811 910 013   |
| 진주 대아고(김영진)   | 5522 0041      |
| 청주고(조영선)      | 0815 1901 4477 |
| 충남고(이수현)      | 0811 175 126   |
| 한성고(박창화)      | 0816 780 751   |
| 해광고(서동희)      | 0813 9839 9286 |
| 휘문고(맹중호)      | 0818 973 986   |

● 대학교

|              |                |
|--------------|----------------|
| 강원대(송영석)     | 0812 1326 5977 |
| 건국대(조선용)     | 0811 910 6707  |
| 경기대(인기상)     | 739 7625       |
| 경북대(김규식)     | 0816 182 3748  |
| 경희대(양승민)     | 0811 164 367   |
| 계명대(백성영)     | 871 2371       |
| 고려대(이광수)     | 0813 8026 1353 |
| 공군사관후보생(김기정) | 08179187100    |
| 부경대(이제원)     | 0812 968 9797  |
| 동국대(염정운)     | 0817 681 8599  |
| 동아대(서종균)     | 0811 850 212   |
| 부산대(유제상)     | 0811 841 510   |
| 부산외대(이동훈)    | 0816 781 564   |
| 서강대(이철우)     | 08121177399    |
| 서울대(정무웅)     | 797 5959       |
| 성균관대(김진태)    | 0818 953 949   |
| 숙명여대(서영자)    | 0815 1324 2799 |
| 숭실대(김학수)     | 0811 879 701   |
| 아주대(서보상)     | 0815 1902 4220 |
| 연세대(금민철)     | 0816 864 677   |
| 영남대(김상수)     | 0812 103 8707  |
| 영산대(최재혁)     | 590 0401       |
| 울산대(최재호)     | 723 0917       |
| 이화여대(김미승)    | 0811 122 0566  |



"아침을 깨우는 신문"

자카르타경제신문

아침 PAGI .co.id

자카르타경제신문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세요.  
자카르타경제신문의 온라인 신문이 드디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이제 지면뿐만 아니라 모바일과 인터넷을 통해 더 빠르고 생생한 인도네시아 소식과 한인동포 소식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                   |                |
|-------------------|----------------|
| 인하대(이기홍)          | 0816 812 507   |
| 전남대(최병욱)          | 0816 188 1233  |
| 전북대(최성호)          | 0815 7232 3689 |
| 중앙대(손동근)          | 0811 844 247   |
| 충남대(노제익)          | 452 6968       |
| 충북대(최병인)          | 0817 778 857   |
| 한국외대(신성철)         | 0818 936 943   |
| 한국해양대(이승준)        | 0811 190 7718  |
| 한양대(임영석)          | 0811 944 338   |
| ROTC(인니지회사무국장한규성) | 0818 890 571   |

● 은행

|       |            |
|-------|------------|
| 수출입은행 | 525 7261   |
| 외환은행  | 574 1030   |
| 우리은행  | 515 1919   |
| 하나은행  | 522 0222~3 |

● 종교 단체

|           |           |
|-----------|-----------|
| 기독교       |           |
| 꿈이있는교회    | 548 3044  |
| 늘푸른교회     | 766 9191  |
| 동부교회      | 4587 7317 |
| 연합교회      | 7279 5625 |
| 예사랑침례교회   | 4176 5140 |
| 소망교회      | 739 6487  |
| 순복음교회     | 739 2373  |
| 안디옥교회     | 751 5525  |
| 열린교회      | 844 5537  |
| 위자야한인교회   | 7279 3145 |
| 자카르타사랑의교회 | 450 7324  |
| 주님의교회     | 831 3843  |
| 중앙감리교회    | 533 2749  |
| 찌까랑임마누엘교회 | 8990 3133 |
| 참빛교회      | 720 0240  |
| 한마음교회     | 739 5035  |
| 한인성요셉성당   | 7884 3782 |
| (찌까랑 공소)  | 8911 7547 |



하루에도 몇 번씩 나를 돌아봅니다.  
고객은 나의 거울이요 진정한 스승이십니다.  
한분 한분의 스승을 만나기 위해  
나를 가다듬고 精과 誠과 禮를 다해 찾아뵙겠습니다.

고객을 위해 빠르게-

DOOWANG Consulting  
Since 1994

Graha Surveyor Indonesia, 19<sup>th</sup> Floor Suite 1901  
Jl. Jend. Gatot Subroto Kav. 56, Jakarta 12950  
Tel. (62-21) 2941-0780 (hunting) | Fax. (62-21) 2941-0775  
Mobile: 0811-953607  
www.doowang.net | E-mail: doowang@cbn.net.id

항공권 · 호텔 · 관광 · 비자

로데름과 함께하면  
즐거움은 배가 됩니다

RODEM TOUR

Tel: (021) 4587 8833 Fax: (021) 293 64168  
HP: 0812 967 8131  
E: rodemtours@naver.com  
rodem\_tours@cbn.net.id

Korean Traditional Grill

# 고주몽



## 7279-6709

Jl. Panglima Polim IX No.7-9 Jakarta Selatan

불교>조계종 능인정사 724 7261  
 조계종 해인사 인도네시아 765 6036  
 (동부자바포교원) 0818 333 491  
 법연종 법연원 720 8607  
 조계종 고려정사 724 3571  
 이슬람>한국이슬람 인니지회 871 6906

●가구

췌지언 퍼니처 766 0364  
 아이니갤러리 581 4690

●건강식품/건강원

COCOON(일동제약인니지부) 520 7662  
 경동건강원 7028 4262  
 고려건강원 081 690 3990  
 부아메라 0816 1854 58  
 한국건강원 5579 6411  
 황소건강원 5576 7628  
 진영삼봉나와 8234 565  
 솔진생코리아 7278 8287  
 클로렐라 470 4280  
 이롬황성주생식 5296 1522

●국제전화 서비스

글로벌링 725 1606  
 넥스텔링크 525 3187  
 데이콤 720 7551  
 킹폰 574 0888  
 현대 텔레콤 5579 1226  
 Hallo Phone 5290 0233

●건설 설비 전기

건설 중장비 렌탈 08111 43437

●꽃/화환

꽃과 좋은날 0811 846 174  
 난 이야기 0812 913 1355  
 에셀꽃집 0816 733 810

●기타

바틱하우스 0816 770 143  
 마음수련 722 1600  
 바람소주 0811 85 3156  
 스폰지 7095 4771  
 아시아 진주 7278 8327  
 Good Deal Gallery 573 6233

●노래방

팡팡노래방 & 치킨 720 7275  
 Beat Box(끌라빠가딩) 9773 4780  
 IDOL가라오케(땅그랑) 021 546 0840

●렌트카/기사클럽

강남렌트카 081 2109 7631  
 서울렌트카 6870 9335  
 우리렌트카 081 119 3069  
 한성렌트카 889 0471  
 짱구기사클럽 7279 8233  
 링크렌트카 9583 1000

●미용실/피부관리

갤러리 J 725 2856  
 국제미용원 739 6129  
 뷰티 # 520 4428  
 스칼렛미용실,피부관리실 547 5867  
 아마란스화장품 723 1537  
 JR SALON 7279 7906  
 퀸덤 7279 2067~8  
 Hair Perm 7280 1404  
 닥터큐(피부미용) 5696 7090  
 자르헤어 7279 6998  
 Salon & Beauty Shop 7278 6969

●변호사 사무소

이승민 법률사무소 525 5959  
 법무법인 P.Y.L 527 2422

P.A.K. 변호사사무실 797 6254  
 이소왕 변호사 사무소 520 7153  
 K LAW 변호사 사무소 5785 3271

●부동산

그린 부동산 726 4949  
 2005뉴밀레니움 7082 0056  
 리츠부동산 6896 7249  
 대한부동산 0813 1447 6593

●방송사

K-TV 525 2922  
 OKTN(KBS World) 797 6151  
 KABLE VISION 527 8811  
 INDOVISION 581 9988

●병원

관준한의원 722 7745  
 뉴월드메디칼 7279 3809  
 보청기센터(Hearing Vision) 7280 1819  
 실로암 한의원 720 1779  
 서울메디칼 크리닉 799 1333  
 신농서한방병원 7278 0563  
 아름다운 병원 720 7628  
 향림당 한방병원 720 7727  
 RS. BUNDA 322 0005  
 RS. GRAHA MEDIKA 530 0887  
 RS. MEDISTRA 521 0200  
 RS. M.M.C 522 5201  
 RS. PONDOK INDAH 765 7525  
 RS. Siloam (땅그랑) 546 0055  
 RS. Siloam (찌까랑) 8990 1911  
 Matahari Klinik 722 6391  
 Dokter Korea 0815 8539 7777

●비디오

비디오 서울 723 2088  
 한양 비디오 450 4364  
 K-마트 비디오 688 22040

●사진관

ELGA 포토스튜디오 521 0862

●슈퍼마켓

뉴서울슈퍼 725 0520  
 뉴부산슈퍼(땅그랑) 5940 0375  
 만나슈퍼(버까시) 821 8705  
 무궁화슈퍼 722 2214  
 무궁화(땅그랑) 558 2214  
 무궁화(끌라빠가딩) 453 3624  
 무궁화(찌까랑) 7075 2214  
 무궁화(다르마왕사) 723 3214  
 서울마트(가라와찌) 546 0844  
 서울슈퍼(끌라빠가딩) 450 4364

● 한인문예총

<회장단 & 집행부>

강희중 회장 0816 798 221  
 사공경 부회장/기획 /문협회장 0816 1909 976  
 이일하 부회장/공연/음협회장 겸직 /사무국장 0811 1903 108  
 신돈철 부회장/전시/미협회원 0878 5480 4815  
 이선현 감사/아버지양상블 단장 0811 8120 666  
 한경순 사무차장/문협회원 0816776344

<협력단체장>

서예협회장 : 제경중 0811 830 477  
 루시플라워 회장 : 최정순 0811 834 026  
 미술협회 회장 : 이수진 0858 8870 6856  
 문인협회 회장 : 사공경 0816 1909 976  
 한바패 회장 : 박형동 0811 149 586  
 어린이 합창단 지휘자 : 안영수 0811 9005 639  
 색소폰 동호회 회장 : 박의태 0811 876547

헤리티지(코리안) 회장 : 이수진

0816 1300 210  
 국악사랑 회장 : 장방식 0811 902 003  
 월화차 회장 : 김인순 0819 0592 2421  
 음악협회 회장 : 이일하 0811 9103 108  
 아버지양상블 단장 : 이선현 0811 8120 666

<촉탁 전문위원>

\* 안선근 : 현지단체 교류 0816 1883 223  
 \* 최석일 : 문화컨텐츠 0818 901 609

우리슈퍼(버카시) 8240 4575  
 월드마트 8430 2535  
 하나마트 8459 0064  
 한일마트 723 2086  
 한일마트(땅그랑) 5577 8633  
 G-마트(찌부부르) 8459 9858  
 K-마트 725 2122  
 워자야마트 726 9049

● 식당

가나 레스토랑 252 0077  
 가야성 725 7373  
 가호(Sudirman) 9127 2262  
 가호(Kelapa Gading) 4587 6626  
 강강수월래 380 5217  
 강나루(땅그랑) 5576 8222  
 강촌(땅그랑) 5579 3681  
 경복궁(찌까랑) 8990 8822  
 고려가든(스마랑) (024) 746 4090  
 고목(찌까랑) 897 3463  
 고인돌 452 5597  
 고주몽 7279 6709  
 국일관 822 8974  
 권명희복집 720 7464  
 금수강산(찌까랑) 8983 3282  
 기소야 574 7581  
 뉴코리아타워 3193 0311  
 뉴서울(땅그랑) 546 0845  
 다리아분식 722 0276  
 대감집 726 4356  
 김삿갓 722 2230  
 동해복집 720 7464  
 마포 7279 2479  
 만나 821 5279  
 만리장성(땅그랑) 552 1210  
 명가면옥(땅그랑) 552 2745  
 모나리자(찌까랑) 8990 9570

몰레방아 8990 6956  
 목우촌 450 4155  
 미르(맨하튼호텔) 5296 1201  
 미추홀(선레이크호텔) 6583 1472  
 버카시서울(버카시) 8895 7604  
 부산찻집(골라빠가딩) 4585 1156  
 산들(땅그랑) 5579 5821  
 산타코리아 722 9921  
 신타카 클래식(버카시) 8459 9282  
 상록수 8983 6047  
 서동(찌부부르) 8459 9858  
 서라벌 572 3475  
 서울가든 (0361)768 323  
 서울일식(땅그랑) 546 0845  
 서울팔레스 (024) 447 414  
 소양(찌까랑) 897 2231  
 송가네 삼계탕(골라빠가딩) 4585 4422  
 송도(리뽀찌까랑) 8990 1474  
 수라청(세노파티) 527 8721  
 수라청(골라빠가딩) 4585 1115  
 스카이 코리아(공항) 550 9158  
 시티서울 5289 7506  
 신도시 897 3615  
 아랑 22 5140 1245  
 아랑갈비 8983 6047  
 아랑/스시 코리아 453 1679  
 아리랑(리뽀찌까랑) 8990 1662  
 아리아분식 722 0276  
 아랑갈비(찌까랑) 8983 6047  
 아리랑(찌까랑) 8990 9917  
 압구정 2905 2925  
 이스타나코리아 314 4501  
 어울림 551 4853  
 아마(땅그랑) 547 2722  
 어울(땅그랑) 551 4853  
 본가 739 6229  
 우리들(땅그랑) 552 4047

울엄마 920 7244  
 원조식당(수까부미) 4585 1156  
 원치킨호프(땅그랑) 5577 6770  
 2002 레스토랑(땅그랑) 5940 4189  
 장수대 726 4570  
 장터(골라빠가딩) 4585 4302  
 종가집 8990 6956  
 주막레스토랑(찌까랑) 8990 0514  
 카사블랑카 8241 4949  
 코레아나 390 4568  
 코리아하우스(찌부부르) 844 4786  
 코리아하우스(반동) (022) 203 1626  
 코리아우스(Hits) 844 5877  
 타임(까라와찌) 5577 6324  
 태극관 822 7011  
 토담 521 0230  
 토박 725 1135  
 팔레스 5296 2001  
 천지루(찌까랑) 8990 1662  
 청기와 726 1924  
 청마루(골라빠가딩) 452 5597  
 청해수산 739 7032  
 초가(가라와찌) 552 6043  
 춘하추동 5940 2846  
 팡팡치킨 720 7275  
 하나레스토랑 4482 0081  
 하나마트 식당 8459 0064  
 하나비(리뽀찌까랑) 8990 3334  
 하나정(땅그랑) 5577 6457  
 하림각 551 8511  
 한강(Wolter Monginsidi) 7278 7802  
 한국관 720 7322  
 한민족 725 2688  
 한성관(골라빠가딩) 453 3033  
 한술 5290 3417  
 한양가든 521 2522  
 한양가든(골라빠가딩) 450 2071



#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                     |           |      |
|---------------------|-----------|------|
| 한우리(씨부부르)           | 8459      | 2871 |
| 할매손칼국수(끌라빠가딩)       | 4585      | 3398 |
| 함지박                 | 739       | 6958 |
| 향수                  | 645       | 2378 |
| 해물촌                 | 451       | 3761 |
| 해운대(땅그랑)            | 5577      | 8527 |
| 황소가든                | 8240      | 9670 |
| 황소가든                | (0264)313 | 011  |
| Ah Yat 레스토랑         | 5705      | 333  |
| Beat Box(끌라빠가딩)     | 9773      | 4780 |
| BBQ(끌라빠가딩)          | 4584      | 7444 |
| Esse MM2100         | 8998      | 1564 |
| Lobster & King Crab | 515       | 5060 |

●신문

|              |      |      |
|--------------|------|------|
| 동아일보         | 720  | 6802 |
| 데일리코리아       | 725  | 7447 |
| 조선일보         | 5290 | 7388 |
| 중앙일보         | 7590 | 8308 |
| 한국일보         | 769  | 1081 |
| 한나프레스        | 4586 | 9199 |
| 일요신문         | 452  | 5655 |
| 타임인도네시아      | 5028 | 4996 |
| JAKARTA POST | 530  | 0476 |
| 자카르타경제일보     | 5290 | 0117 |

●안경원

|        |      |      |
|--------|------|------|
| 눈사랑안경원 | 9820 | 1493 |
| 시티안경원  | 726  | 5009 |

●여행사

|         |      |         |
|---------|------|---------|
| 하나족자트래블 | 0274 | 887 488 |
| 굿데이투어   | 4586 | 0598    |
| 그린관광    | 798  | 3322    |

|                 |      |           |
|-----------------|------|-----------|
| Red Cap         | 5797 | 3397      |
| Rodem Tour      | 4587 | 8833      |
| 마타아리 여행사        | 521  | 2212      |
| 부미관광            | 7279 | 0011      |
| 비자여행 Malaysiaro | 603  | 9274 1780 |
| 솔로몬투어           | 0813 | 1934 1000 |
| 싱가폴투어(비자)       | 2903 | 6647~50   |
| 스카이투어           | 391  | 1381      |
| 우리투어            | 794  | 0422      |
| 153 TOUR        | 5720 | 153       |
| 코리아트래블          | 230  | 3116      |
| 코인관광            | 720  | 7230      |
| 하나관광            | 520  | 2450      |
| 호산여행사           | 691  | 3602      |
| HAPPY TOUR      | 532  | 7970      |
| Inko Batam(바탐)  | 0778 | 462 500   |
| 사랑투어            | 3192 | 4449      |

●인니어통역/번역

|          |     |          |
|----------|-----|----------|
| Mrs. Lee | 021 | 743 2687 |
| CITRA    | 781 | 7771     |

●인터넷

|                   |      |      |
|-------------------|------|------|
| HANASTAR INTERNET | 2270 | 8282 |
| S-Net             | 7080 | 7886 |

●인테리어

|            |      |           |
|------------|------|-----------|
| H2 Stuff   | 4586 | 7860      |
| KJ건축 인테리어  | 0821 | 2564 1777 |
|            | 7590 | 6767      |
| Living A&I | 7278 | 0704      |
| 로만인테리어     | 720  | 4851      |
| 아이니인테리어    | 0812 | 1928 5578 |
| INNOMATE   | 7919 | 2006      |

●운송 해운 이삿짐

|                   |      |      |
|-------------------|------|------|
| 소명통관              | 4585 | 9283 |
| 센다이 이주화물          | 8770 | 6361 |
| 아네카 트랜스           | 520  | 4181 |
| 트랜스 우따마           | 829  | 6218 |
| 프라임 운송 인도네시아      | 5591 | 5770 |
| CARGO PLAZA       | 831  | 7779 |
| DHL               | 7919 | 6677 |
| FIRSTINDO EXPRESS | 5296 | 0024 |
| PANTOS LOGISTICS  | 8998 | 2855 |
| HAES IDOLA CARGO  | 8591 | 8488 |
| HANINDO EXPRESS   | 252  | 5123 |
| KORNET LOGISTICS  | 8379 | 3455 |
| QCN               | 7884 | 1550 |
| Wings Global      | 4585 | 8053 |
| ZIMMOAH           | 2937 | 5670 |
| WIKASA            | 8379 | 1935 |

●자동차 정비소

|            |     |      |
|------------|-----|------|
| 벵켈 코리아 모터스 | 885 | 4034 |
|------------|-----|------|

●증권/보험

|          |     |      |
|----------|-----|------|
| 삼성화재     | 520 | 5511 |
| 우리코린도증권  | 797 | 6210 |
| 클레몽종합금융  | 797 | 6363 |
| 메리츠코린도보험 | 797 | 6242 |
| 키움증권     | 526 | 1326 |
| KDB 대우증권 | 515 | 1140 |
| LIG 손해보험 | 391 | 3101 |

●컨설팅

|                |      |      |
|----------------|------|------|
| 글로벌컨설팅         | 7280 | 0524 |
| 누비라컨설팅(리쁘찌까랑)  | 8990 | 0088 |
| 두왕컨설팅          | 520  | 7153 |
| 새천년컨설팅         | 5290 | 0040 |
| 우리컨설팅          | 7918 | 4239 |
| 컨설팅 21         | 799  | 6182 |
| 퓨릭컨설팅          | 5596 | 3213 |
| 한생컨설팅          | 5290 | 0670 |
| KMAQA (ISO인증원) | 573  | 1576 |

●컴퓨터, IT

|           |                 |      |
|-----------|-----------------|------|
| 대인정보시스템   | 230             | 5533 |
| 레드망고(PC방) | 4584            | 4186 |
| 리콤컴퓨터     | 725             | 1606 |
| 컴퓨터 원     | 5576            | 5228 |
| 지텍컴퓨터     | 5696            | 7001 |
| 하나로정보통신   | 9260            | 0950 |
| 한비텔       | 8379            | 1144 |
| 인도웹       | www.indoweb.org |      |

●택시

|             |     |      |
|-------------|-----|------|
| SILVER BIRD | 798 | 1234 |
| BLUE BIRD   | 794 | 1234 |

●하숙

|              |              |           |
|--------------|--------------|-----------|
| 경복궁하숙(리쁘찌까랑) | 081314157581 |           |
| 가딩 홈스테이      | 9661         | 5877      |
| 간다리아게스트하우스   | 0858         | 1442 2900 |
| 갈릴리 게스트하우스   | 0858         | 1341 3222 |
| 갤러리 게스트하우스   | 0813         | 1514 9978 |
| 교민 하숙        | 0816         | 163 5558  |
| 나인비즈니스 하숙    | 9940         | 5005      |
| 동지 하숙        | 3608         | 9316      |
| 리쁘찌까랑 하숙     | 0812         | 1066 7757 |
| 레저 게스트하우스    | 0811         | 143 437   |
| 모나리자         | 8990         | 9570      |
| 모이하숙         | 0878         | 8515 1653 |
| 사랑채 게스트하우스   | 0813         | 8059 1625 |
| 세명 하숙        | 0852         | 1757 5525 |

|             |                |
|-------------|----------------|
| 세노파티코리안 하우스 | 0821 1336 1111 |
| 소망 하숙       | 0813 1724 9911 |
| 쉽터 하숙       | 726 8775       |
| 시내중심 게스트하우스 | 0815 1780 3680 |
| 이모네 하숙      | 0818 964 946   |
| 인다 게스트하우스   | 0822 6074 8228 |
| 엘지 게스트하우스   | 0812 100 7135  |
| 엘림 게스트하우스   | 0815 181 3122  |
| 위자야 게스트하우스  | 0815 1024 8888 |
| 자카르타 게스트하우스 | 0817 127 887   |
| 풀하우스        | 0818 901 609   |
| 한밭          | 830 9990       |
| 한울타리        | 739 5841       |
| 한아름 게스트하우스  | 723 8302       |
| 현대 하숙       | 0818 795 787   |
| 한마음 게스트하우스  | 0813 8822 7783 |
| BSD등불 하숙    | 0852 1985 1523 |
| 힐링 게스트하우스   | 0821 1427 5415 |

● 학원/교육업

|                  |                |
|------------------|----------------|
| 대교인도네시아          | 5292 0911      |
| 마인드케어학습클리닉       | 546 4531       |
| 뮤직아카데미           | 0815 1150 6664 |
| 박학천논술            | 4586 7844      |
| 뿐독인디아카데미         | 7590 5773      |
| 에세드라아트스쿨(리뽀까라와찌) | 546 4531       |
| 예원               | 720 8783       |
| 케이에듀인 한국어/유학원    | 2942 7062      |
| 종로학원             | 7883 5202      |
| 토마토미술            | 723 3699       |
|                  | 0817 9876 950  |
| 피카소어린이미술학원       | 3582 0077      |
| 하이스트학원           | 720 2022       |
| 해동검도             | 522 7204       |
| 해보다외국어학원         | 0888 843 0415  |

● 항공

|                      |               |
|----------------------|---------------|
| 대한항공 (시내)            | 521 2180      |
| (공항)                 | 550 2389      |
| GARUDA (Call Center) | 2351 9999     |
|                      | 0804 1807 807 |
| 아시아나 항공 (시내)         | 572 1381~3    |
| (공항지점)               | 5591 3229     |
| 싱가폴 항공               | 570 4411      |

● 호텔

|        |          |
|--------|----------|
| 그랜드멜리아 | 526 8080 |
| 만다린    | 314 1407 |
| 물리아    | 574 7777 |
| 샹그릴라   | 570 7440 |
| 싸이드자야  | 570 4444 |

창립 20주년 행사

고객님의 사랑과 성원으로

창립 20주년 감사 특별할인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S 아시아 진주 Asia Pearls

20여년간 진주양식 직영을 바탕으로  
최상의품질을 정직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아시아 진주가 되겠습니다.



- ◆ 한국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진주 전 품목 수출 및 도매(한국 배달 가능)
- ◆ 정품 다이아(GIA) 판매 - 90% 환매보장 ◆ 금 매입·매각 가능
- ◆ 모든 셋팅물 새로운 디자인으로 재가공 가능 ◆ 결혼 예물세트(다이아, 진주)

갤러리(위자야센터 옆)

Darmawangsa Square - City Walk Lt.1 No.28  
Jl. Darmawangsa VI & IX Kebayoran Baru Jak-Sel  
Tel. 021-7278-8327 HP. 0888-110-2022

본 점(수출/무역)

HP. 0816-873-176  
HP. 0816-1390-333  
E-mail. 3spearl@hanmail.net



▶▶▶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                    |                |
|--------------------|----------------|
| 하야트                | 390 1234       |
| 크라운플라자             | 526 8833       |
| 술탄                 | 573 8011       |
| GSI Hotel & Resort | 0858 8248 3211 |
| 자바 팔레스             | 2928 1111      |

●환전

|          |                |
|----------|----------------|
| 굿-머니     | 5793 9990      |
| 그린환전소    | 0815 1423 0114 |
| 끌라빠가징    | 453 1166       |
| 사강머니체인저  | 5290 0233      |
| 위나머니체인저  | 7278 0929      |
| 뚜나스신암    | 797 6105       |
| 참피온머니체인저 | 458 51158      |
| 환전       | 712 8556       |

**발 리 (지역번호 0361)**

- 한인단체  
재발리한인회 0812 3793 9452
- 항공  
대한항공(KAL) 768 377
- 종교단체  
한인교회 462 222
- 슈퍼마켓  
한국슈퍼마켓 281 929
- 여행사  
B.J.C TOUR 284 365  
BALI INDA TOUR 286 905  
BALI DAMAI TOUR 764 864  
BALI HARMONY TOUR(A) 744 1815  
BALI STAR TOUR 868 8287  
BALI TAP TOUR 860 4977  
MANGOCAKE 745 4229  
FIN DONGHWA TOUR 847 1966  
DREMLAND TOUR 745 1961  
DARMA BALI TOUR 848 0030  
KOURUS TOUR 744 7200  
M. TOUR MAIL 725 800  
NUSA TOUR 285 122  
I TOUR 261 105  
MATAHARI KOREN TOUR 703 479  
MARIN TOUR 224 010  
PDTOUR 763 845  
PENJOR TOUR 727 800  
P.B.B TOUR 288 999  
U2 Bali Holiday TOUR 710 731  
T.N.B TOUR 808 9000  
UNION TOUR 745 4419  
SUDINA TOUR 744 2121  
SPIRIT TOUR 780 2340  
KOREA TRAVER 756 899  
V.I.P. 여행사 762 090  
WORLD RESORT CENTER 778 218  
WEDDING TOUR 745 3650
- 식당  
그릴하우스 (0361) 710 374  
꼬끼레스토랑 770 256  
대장금(SIMPANG SIUR) 889 0870  
대장금(SANUR) 918 1888  
라리스 727 405  
부가 805 1212  
서울가든(부두굴) (0362) 342 9220

|          |         |
|----------|---------|
| 한일관      | 727 250 |
| 인터내셔널라운지 | 759 368 |

●서비스업

- 빌라, 호텔

|                       |          |
|-----------------------|----------|
| BEVERLY HILLS VILLA   | 848 1800 |
| BALI DIARY HOTEL      | 499 282  |
| DREAM LAND VILLA      | 708 199  |
| OCEAN BLUE BALI VILLA | 776 700  |
| MAN&WOMAN VILLA       | 847 6521 |
| LAVENDER HOTEL        | 752 961  |
| VILLA DOWNTOWN        | 736 464  |
| VILLA NAMASTE         | 755 755  |
| AISIS VILLA           | 862 8777 |

●기타서비스업

|                          |               |
|--------------------------|---------------|
| I.N.L                    | 720 999       |
| INKO CLUB                | 722 431       |
| HALLO BALI               | 723 593       |
| SIMPANG SIUR             | 761 313       |
| AVENUE                   | 762 327       |
| AISIS (NUSADUA)          | 770 256       |
| AISIS (SANUR)            | 287 257       |
| COLAGEN BUTY SHOP        | 885 1770      |
| CLUBBER                  | 766 340       |
| BALI FINE                | 852 8881      |
| POLO SHOP(AIRPORT)       | 759 368       |
| BALI TEGEHE AGUNG        | 298 643       |
| CLEAN & GREEN            | 289 070       |
| SUN JEWELLERY            | 761 537       |
| SINAR MUTIARA BALI       | 462 061       |
| BALI DEWATA              | 285 501       |
| CHIPPENDALE FURNITURE    | 812 570       |
| SAMMA                    | 815 310       |
| BALI PROPERTY CONSULTING | 264 086       |
| SHINY HAIRSHOP           | 766 304       |
| 카리스(특피전문백)               | 0811 998 1637 |

**반둥 (지역번호 022)**

●식당

|        |            |
|--------|------------|
| 뉴캐슬식당  | 201 5007~8 |
| 명가레스토랑 | 200 7363   |
| 코리아하우스 | 203 1626   |
| 한국관    | 204 3069   |

●서비스업

|         |                |
|---------|----------------|
| 뉴캐슬사우나  | 201 5007~8     |
| 반둥렌트카   | 0858-1111-4000 |
| 반둥한인부동산 | 0858-1111-4000 |
| 반둥컴닥터   | 0821-2222-6000 |





**PT. DONG JUNG INDONESIA**  
EXPORTER - IMPORTER - POLYBAG MANUFACTURER

## 동중 인도네시아는

1 23년간 축적된 기술로

포장용 비닐(Poly Bag) 및 프린트에 관한 완벽한 기술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2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품질경영시스템 ISO 9001과

친환경제품 생산을 위한 ISO 14001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3 Best Quality & Quick Delivery를 최우선으로 귀사의 발전과 함께 성장하겠습니다.

당사1공장 내부

**Head Office**  
(Jakarta)

T 62-21-525-2258  
F 62-21-525-0141

**Factory 1**  
(Curug-Tangerang)

T 62-21-598-7513, 598-0152  
F 62-21-598-0860

**Factory 2 & Marketing Office**  
(KBN Cakung-Jakarta)

T 62-21-440-3926  
F 62-21-440-3944

**Marketing Office E-mail**

dji\_mkt@cbn.net.id  
bhjangik@indosat.net.id  
kendj@cbn.net.id

# KORINDO Plants the Green



인류의 지속가능성, 녹색경영에서 해법을 찾다!

코린도의 주력사업인 천연림경영, 조림, 팜오일, 목가공사업 등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친환경사업을 통해 지구와 인류를 위한 지속가능의 해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 Green Tomorrow

파푸아 오일팜 농장  
Asiki, Papua Indonesia

이노메이트는 최고의 전문성으로 공간의 가치를 극대화 하며, 고객의 감동으로 이어지는 최고의 공간을 디자인합니다.

# ‘나름’이 아닌, ‘다름’

삼성이노베이션뮤지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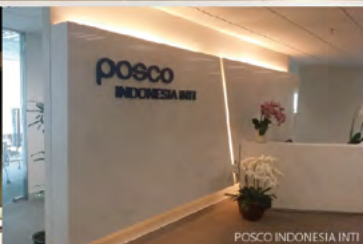
모든 사용이디지는 본사 디자인 디렉터들이 참여한 프로젝트의 사진입니다.

**INNOMATE**

14F, SME-Tower, Jl. Jend. Gatot Subroto Kav 94, South Jakarta, 12780 Tel 021.7919.006(Rep.) Fax 021.7919.2062



Chung-Dam Beauty Salon



POSCO INDONESIA INTI



KBS Media Center



Haesley Ninebridge



KIDECO,  
the most reliable coal supplier  
and  
friend moving towards  
the future together

